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용역

2026. 02.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CONTENTS

<제목 차례>

01 과업개요 및 추진방향	3
제1절 과업 목적 및 내용	3
가. 과업 목적	3
나. 과업 내용	3
제2절 과업 추진 방향	5
02 글로벌 도시 삶의 질 지표	9
제1절 인천시의 도시 경쟁력 현황과 한계	9
가. 인천시 도시 경쟁력 현황	9
나. 인천시 도시 경쟁력 한계	12
제2절 글로벌 지표 체계 및 평가항목 분석	14
가. Kearney - Global Cities Index / Global Cities Outlook	14
나. Mori Memorial Foundation - Global Power Cities Index	16
다. EIU - The Global Liveability Index	19
라. Mercer - Quality of Living Index	20
마. Institute for Quality of Life - Happy City Index	22
제3절 인천시 도시경쟁력 지표 보완	24
가. 공백지표 보완 추진	24
나. 홈페이지 지표 보완 내역	24
라. 데이터 확보 체계 구축	33
03 선진도시 벤치마킹	37
제1절 벤치마킹 개요	37
가. 벤치마킹 추진 체계	37
나. 벤치마킹 구조	38
제2절 벤치마킹 후보 도시 선정	40
가. 벤치마킹 도시 선정 프로세스	40
나. 벤치마킹 도시 선정결과	40
다. 벤치마킹 후보 도시 분야별 강점 및 연관 세부지표	43
라. 벤치마킹 후보 도시 최종선정	51
제3절 도시별 도시정책 및 지표관리 특징	55
가. 토론토 도시정책 및 지표관리 특징	55
나. 함부르크 도시정책 및 지표관리 특징	57
다. 파리 도시정책 및 지표관리 특징	60
라. 벤치마킹 도시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분석 시사점	62

CONTENTS

제4절 벤치마킹 대상 선진도시와 도시경쟁력 비교	64
가. 인천시 타 도시 비교 도시경쟁력 진단 개요	64
나. 인천시 타 도시 비교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67
다.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전체 결과	69
라. 인적자원 및 교육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72
마. 혁신 및 스타트업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75
바. 사회적 안정성 및 포용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78
사. 보건 및 공중위생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81
아. 문화, 여가 및 관광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84
자. 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87
차. 도시 인프라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89
카. 국제 연결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92
타. IT 및 디지털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95
제5절 인천광역시 도시경쟁력 개선방안 제안	98
가. 인적 자원 및 교육: '지식 생산 도시'로의 체질 개선	98
나. IT 및 디지털 혁신: '시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 실현	98
다.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고부가가치 창업 생태계' 확충	98
라. 도시 인프라 및 연결성: '15분 초연결 도시' 완성	99
마. 문화 및 환경: '지속 가능한 품격 도시' 브랜딩	99
제4장 글로벌지표 관리	103
제1절 인천시 데이터 관리 체계화 방안	103
가.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	103
나. 데이터 확보 체계 및 관리 유형화	103
다. 매트릭스(Matrix) 기반 진단 모델	103
라. 데이터 체계화 5대 핵심 과제 추진 방안	105
마. 추진 거버넌스 및 주체별 역할	106
사.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109
제2절 지표관리 중장기 계획	111
가. 비전 - 글로벌 지표 기반 도시경쟁력 관리선도 도시 인천	111
나. 핵심가치	111
다. 전략방향	112
라. 추진 로드맵	114
05 종합 제언	117
제1절 연구요약	117
가. 인천 도시경쟁력 지표 보완 및 진단	117
나. 글로벌 도시 삶의 질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선진도시 벤치마킹 분석	118
다. 글로벌 삶의 질 지표에 인천시의 도시경쟁력 반영 추진	119
제2절 정책제언	121
가. 도시 체질 개선: 5대 핵심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121
나. 글로벌 네트워크: 평가 대응 및 환류(Feedback) 시스템 정착	125

<표 차례>

<표 1> Global Cities Index 세부 지표 내용	15
<표 2> Global Cities Index 세부 지표 내용	15
<표 3> Global Power Cities Index 세부 지표 내용	18
<표 4> Global Liveability Index 세부 지표 내용	19
<표 5> Quality of Living Index 세부 지표 내용	21
<표 6> 공백지표 확보 현황	25
<표 7> 정량지표 확보 방안	26
<표 8> 정성지표 확보 방안	27
<표 9> 인천광역시 통합 도시경쟁력 지표	28
<표 10> 인천광역시 종합 도시경쟁력 지표에서 제거한 지표	33
<표 11> 데이터 확보 체계 구성	34
<표 12> 1차 선정 12개 도시 주요지표별 순위 및 벤치마킹 키워드	41
<표 13> 2차 선정 9개 도시 주요지표별 순위 및 벤치마킹 키워드	41
<표 14> 주거안정 관련 벤치마킹 후보도시	44
<표 15> 환경·기후 관련 벤치마킹 후보도시	45
<표 16> 교통혁신 관련 벤치마킹 후보도시	47
<표 17> 경제·재생 관련 벤치마킹 후보도시	49
<표 18> 토론토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기초 특징	55
<표 19> 토론토 도시개발 특징	56
<표 20> ‘삶의 질’ 키워드 관련 지표 관리현황: 토론토	57
<표 21> 함부르크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특징	57
<표 22> 함부르크 도시개발 특징	58
<표 23> ‘삶의 질’ 키워드 관련 지표 관리현황: 함부르크	59
<표 24> 파리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특징	60
<표 25> 파리 도시개발 특징	61
<표 26> 도시 자체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 보고서 작성 - 파리	62
<표 27> 토론토, 함부르크, 파리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시사점	63
<표 28> 도시경쟁력 비교 진단 활용 세부지표	64
<표 29> 거버넌스 추진안	108
<표 30> 인천광역시 삶의 질 기반 도시경쟁력 지표관리 중장기 전략	113
<표 31> 인천광역시 삶의 질 기반 도시경쟁력 지표관리 중장기 전략 추진 로드맵	114

<그림 차례>

<그림 1> 인천시 진단 결과 종합	68
<그림 2> [전체] 인천시 진단 결과	70
<그림 3> 인적자원 및 교육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73
<그림 4> 혁신 및 스타트업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76
<그림 5> 사회적 안정성 및 포용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79
<그림 6> 보건 및 공중위생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82
<그림 7> 문화, 여가 및 관광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85
<그림 8> 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88
<그림 9> 도시 인프라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90
<그림 10> 국제 연결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93
<그림 11> IT 및 디지털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96
<그림 12> 매트릭스 활용 인천광역시 ‘삶의 질 기반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	104
<그림 13> 인천광역시 ‘삶의 질 기반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 단계별 목표 및 접근방안	105
<그림 14> 데이터 체계화 거버넌스 주체별 R&R 정립	106
<그림 15>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110

제1장

01

과업개요 및 추진방향

제1절 과업 목적 및 내용

제2절 과업 추진 방향

(빈페이지)

01

과업개요 및 추진방향

제1절

과업 목적 및 내용

가.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인천광역시가 ‘Global Top 10 City’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실천 과제로서, 글로벌 도시 지표(Global City Indices)를 활용해 인천의 현재 위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최적화된 등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글로벌 수준의 객관적 진단: Mercer, EIU 등 공신력 있는 글로벌 평가기관의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삶의 질 수준과 도시 경쟁력을 정밀하게 분석함
 - 글로벌 지표 등재 및 관리 체계 구축: 인천시의 도시 경쟁력이 글로벌 지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기관 맞춤형 대응 자료를 체계화하고 등재 절차를 전략적으로 지원함
 - 도시 경쟁력 강화 로드맵 제시: 글로벌 선진 도시와의 비교·분석(Benchmarking)을 통해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 보완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

나. 과업 내용

■ 글로벌 도시 삶의 질 지표 기반 현황 진단 및 경쟁력 분석

- 지표 체계 분석: Mercer(Quality of Living Index), EIU(Global Livability Index), IESE(Motion Index) 등 주요 글로벌 평가기관의 항목 분석
- 심층 진단 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글로벌 위치를 확인하고, 평가항목별 분석 시행

■ 글로벌 선진 도시 벤치마킹 분석

- 비교 대상지 선정: 글로벌 삶의 질 지표 상위 100위권 도시 중, 인천시와 도시 구조 및 산업 특성이 유사하여 벤치마킹이 가능한 선진 도시 3곳 선정
- 심층 비교분석: 선정된 도시와 인천시 간의 세부 평가항목별 격차 분석 및 우수 사례(Best Practice) 조사
- 전략적 시사점 도출: 비교분석을 통해 인천시가 단기·중장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핵심 경쟁력 강화 요소 식별

■ 글로벌 지표 등재 및 데이터 체계화 지원

- 공식 등재 프로세스 지원: 평가기관이 인천시를 공식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관 접촉 및 협의 대응
- 데이터 최적화: 글로벌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천시의 행정 데이터를 재분류하고, 평가 기관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제2절 과업 추진 방향

■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진단

- 공신력 확보: Mercer, EIU 등 글로벌 평가기관이 사용하는 지표 체계를 분석하여,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통계 중심의 객관적 진단 시행
- 입체적 분석: 단순 수치 비교를 넘어 인천시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벤치마킹 도시 대비 인천시의 강·약점 파악

■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및 차별화

- 타겟 벤치마킹: 상위 100위권 도시 중 인천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
- 강점 극대화 전략: 인천만이 가진 공항·항만 인프라, 스마트 시티 역량 등 차별적 우위 요소를 글로벌 지표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강점 부각 방안 제시

■ 실무 중심의 실행력 강화

- 단순 분석을 넘은 등재 지원: 분석 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평가기관에 제출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체계화 및 네트워킹 지원 활동 수행
-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용역 종료 후에도 인천시 자체적으로 글로벌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빈페이지)

제2장

02

글로벌 도시 삶의 질 지표

제1절 인천시의 도시 경쟁력 현황과 한계

제2절 글로벌 지표 체계 및 평가항목 분석

제3절 인천시 삶의 질 기반 지표 개발

(빈페이지)

02 글로벌 도시 삶의 질 지표

제1절 인천시의 도시 경쟁력 현황과 한계

가. 인천시 도시 경쟁력 현황

1) 국내 경쟁력

■ 한국은행 지역경쟁력 지수(2023)

-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특·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
 - 경제 규모 및 위상: 인천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2023년을 기점으로 부산을 추월하며 서울에 이은 국내 2위 경제 도시로 도약
 - 산업별 경쟁력 양상
 - 제조업: 바이오(송도), 반도체(후공정)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었고, 특히 바이오산업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 역량을 보유
 -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공항·항만) 비중이 높으나, 코로나19 이후 잠시 약화하였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
- 인천광역시는 2023년 전국 1위의 경제성장률(4.8%)을 달성한 압도적인 역동성을 바탕으로, 기존 전통 제조 산업을 바이오 및 항공 부품 등 첨단 신산업으로 빠르게 고도화하며 미래 도시 경쟁력을 공고히 함
 - 성장률: 2023년 인천의 경제성장률은 4.8%로 전국 1위를 기록, 이는 한국은행이 분석하는 지역별 경제 활력도에서 인천이 가장 역동적인 도시임을 증명
 - 제조업 고도화: 전통적인 기계·금속 위주에서 바이오·의약품, 항공기 부품 등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 미래 경쟁력 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

2) 국제 경쟁력

■ Citi-EIU 'Hot Spots'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시티그룹(Citi)의 의뢰를 받아 전 세계 120개 주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인천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경쟁력이 가장 크게

상승할 도시 중 하나로 꼽혔음

- 성장 폭: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평가
- 상승 순위: 2012년 지수와 비교했을 때 순위가 급상승한 'Top Movers' 그룹 내에서 상파울루 (1위), 인천(2위), 뭄바이(3위) 순

○ EIU는 인천의 경쟁력 상승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인프라와 경제적 성과를 꼽음

-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대교 등 강력한 교통 네트워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 영종, 청라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물류, 관광 허브로서의 발전 가능성
- 제도적/사회적 진보: 신흥 아시아 도시 중에서도 두드러진 제도적 환경과 경제적 성장세

■ Institution of Quality of Life 'Happy City Index 2025'

○ 인천이 이 지표에서 전 세계 수천 개 도시 중 상위 100위권(실버 등급)에 안착한 것은, 과거의 '산업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도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인천은 2025년 조사에서 전 세계 종합 72위에 등재(총점 756점)
 - 시민 및 사회적 자본: 교육 수준과 디지털 숙련도,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
 - 거버넌스 및 행정: 투명한 행정 서비스와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 항목에서 준수한 점수를 획득
 - 물리적 인프라(모빌리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최근 확충되고 있는 GTX 등 광역 교통망이 행복도에 기여하는 '이동의 편리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됨
 - 환경 및 지속가능성: 도시 내 녹지 비율과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한 환경 관리 역량이 반영
- 등급: 실버(Silver) 등급 도시로 분류됨
 - 참고: 1~31위 골드, 32~100위 실버, 101~250위 브론즈
- 국내 순위: 서울(6위), 부산(55위), 울산(59위)에 이어 대한민국 도시 중 4위를 기록

○ 특히 2024년 대비 순위권 내 입지가 견고해졌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제력과 시민의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

■ Kearney 'Global City Index' / 'Global City Outlook'

- 인천은 2025년 Kearney사의 Global City Index, Global Cities Outlook에 신규 등재됨
 - 인천은 2025년 GCI/GCO에서 각각 84위, 55위에 등재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 2025년 보고서의 핵심 주제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지능형 시대 도래) 인공지능은 경제 성장과 도시 변혁의 중심이 되었으나 고용, 불평등 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인공지능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것임
특히 인공지능 작업 부하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확보가 중요할 것
 - (환경 탄력성 및 삶의 질) 에너지 확충과 함께 환경 보호를 통합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저해될 것
순환 경제(예: 데이터 센터의 폐열을 난방에 재활용)와 도시 친화적 인프라 설계로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안 마련 중요
 - (인적 자본 개발 및 유지)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운영 인재 유치 및 전 분야 근로자의 활용 능력 확보 등 실직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 필요

■ Z/Yen ‘Smart Centre Index 12’

○ 인천은 2025년 Z/Yen 그룹의 Smart Centres Index 12에 신규 등재됨

- 인천은 2025년 조사에서 전 세계 종합 12위에 등재(총점 712점)
-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싱가포르(3위), 부산(8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지역 내 신흥 기술 중심지로 부상함
- 인천은 실제 정량적 지표에 근거한 예측치보다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평판 우위' 부문에서 150점을 기록하여 조사 대상 도시 중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기술 업계 및 투자자들이 인천의 잠재력과 혁신 의지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지능형 기술의 산업 영향력 확대) 향후 5년간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인공지능, 디지털 및 컴퓨팅이 선정되어 인천은 비즈니스 환경과 금융 부문의 강점을 활용하여 AI 중심의 경제 전환 가속화 필요
 - (에너지 및 환경 기술) 에너지 및 환경 기술 또한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 환경 보호와 결합한 혁신적 에너지 인프라 확보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
 - (인재 역량 강화) SCI 지수에서 인재 확보 능력을 중요한 차원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등수 향상을 위해 인천은 인재 확보 능력 13위로 인재 유치 및 전문 기술 인력 확대를 통한 순위 성장 필요

■ UN Habitat-Shanghai ‘The Global Awar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Cities’

- 인천은 2025년 UN-Habitat와 상하이시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세계 지속가능발전 도시상(The Global Awar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Cities)'을 수상함
 - 전 세계 33개국 85개 신청 도시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알제(알제리), 메디나(사우디아라비아), 보고타(콜롬비아), 에스포(핀란드)와 함께 최종 5개 수상 도시에 포함됨
 - 영향력(Impact), 혁신성(Innova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적응성(Adaptability)의 4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 역량을 입증함
 - (글로벌 지식 공유 및 협력 거점화) 인천의 사례가 전 세계 도시들의 지식 자원인 '상하이 매뉴얼 2025(Shanghai Manual 2025)'에 영감을 주는 사례로 수록된 만큼, 글로벌 도시 간 협력과 학습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인간 중심 스마트 시티 및 기후 회복력 강화) 상하이 어워드의 핵심 가치인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 구축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및 탄력적 개발'을 가속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유지해야 함

■ 국제 경쟁력 시사점 및 제언

- Kearney 사의 GCI, GCO 등재, UN Habitat와 상하이시가 주관한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 수상, Z/Yen사의 Smart Centre Index 등재는 본 과업 내에서의 활동보다는 인천시의 그동안의 등재 시도의 결과임
- 향후 더 많은 평가기관 등재 및 순위 향상을 위한 전략이 중요할 것임을 시사하며 해외 기관 평가 시에 사용되는 인천의 도시 경쟁력 데이터 확보가 중요함
- 도시 경쟁력 데이터 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음
 - 공백 데이터의 확보 및 주기적 최신화 필요
 - 확보가 어려운 지표(전문가 의견, 시민설문 등의 정성 지표)의 경우 확보 방안이나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안
 - 본 과업에서 제작한 인천광역시 도시 경쟁력 종합 지표 및 데이터 확보 체계 구축 자료 활용

나. 인천시 도시 경쟁력 한계

■ 한국은행 지역경쟁력 지수(2023)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재: 제조업(바이오, 반도체 등)은 강세이나, 정보통신(IT),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이 서울 및 타 대도시 대비 낮아 산업 포트폴리오의 불균형 지적
- 낮은 노동 생산성: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지연 시 향후 노동 생산성 저하와 고숙련 인력 유출의 위험이 존재

■ Citi-EIU 'Hot Spots'

- 공항과 항만이라는 뛰어난 물리적 하드웨어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글로벌 기업의 본사 유치나 국제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영향력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런던, 뉴욕 등 전통적인 글로벌 상위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금융 성숙도나 사회·문화적 흡입력 부문에서 여전히 추격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 Institution of Quality of Life 'Happy City Index 2025'

- 경제 규모는 부산을 추월하여 국내 2위에 올랐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지수(72위)는 서울(6위), 부산(55위)보다 낮음
 - 이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나 행복감으로 충분히 전이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교육, 의료, 문화적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매력이 경제 지표에 비해 다소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

제2절 글로벌 지표 체계 및 평가항목 분석

가. Kearney - Global Cities Index / Global Cities Outlook

1) 평가 지표의 목적과 대상

- 도시의 현재 글로벌 영향력(GCI)과 개인 웰빙, 혁신 등 미래 지향적 요소(GCO)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시별 강점과 취약점 파악
- 전 세계 주요 도시 간의 국제적 영향력을 공통 기준으로 비교하며, 정책 결정자나 투자자가 장기적 전략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공
- 전 세계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약 150여 개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GCI, GCO 평가를 수행함
 - (국제 경제·비즈니스 중심 도시) 글로벌 경제 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다국적 기업과 금융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하는 도시
 -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 도시) 국제적 인지도와 문화적 매력도가 높고, 관광 및 문화 교류가 활발한 도시
 - (정치·외교 중심 도시) 국제기구 및 외교 활동의 중심지로서 국제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
 - (기술·혁신 중심 도시) 첨단 기술, 연구개발,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된 도시
 - (국제적 연결성이 우수한 도시) 항공·해운·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글로벌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

2) 평가 배경

- 전 세계 약 150여 개 주요 도시 대상 평가
 - 국제 비즈니스 거점, 문화·관광 중심지, 정치·외교 허브, 기술·혁신 중심지, 국제적 연결성(항공/해운 등)이 우수한 도시 등을 기준으로 선정
- 국제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후보군을 설정하고, GDP, 관광객 수, 글로벌 기업 수 등 정량 데이터 기반 평가 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성적 검증을 통해 최종 대상을 확정함

3) 지표 체계 및 세부 지표 내용

- GCI 평가 지표 체계는 총 5개 핵심 부문으로 구성됨. 각 부문은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도시의 국제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됨

〈표 1〉 Global Cities Index 세부 지표 내용

분야		세부지표	
비즈니스 활동	도시의 기업 활동 및 경제적 환경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춘 500대 기업에 등재된 도시 수 • 최고의 글로벌 서비스 기업 수 • 자본 시장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화물 • 해상 화물 • ICCA 컨퍼런스 개최 수 • 유니콘 기업 수
인적 자본	도시 내 인적자원 현황 및 교육 환경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태생 인구 • 최고의 대학 수 • 고등 교육 학위를 가진 인구 • 유학생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교 수 • 의과대학 • 시장 진입 용이성
정보 교류	도시가 가진 정보통신 인프라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속도 • 통신사 지국 • 광대역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자유 • 데이터 센터 존재
문화 경험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요소 및 다양성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 시각 및 공연 예술 • 스포츠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여행자 • 식문화 다양성 및 질 • 자매 도시 수
정치적 참여	도시가 가진 정치적인 환경 및 국제적 영향력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관 및 영사관 수 • 연구조직 수 • 국제기구 유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지 기관 • 정치 회의

* Kearney의 Global Cities Index 홈페이지의 평가 지표를 국문으로 변환하였음

- GCO 평가 지표 체계는 총 4개 핵심 부문으로 구성됨. 각 부문은 도시의 미래 전망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들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도시가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함

〈표 2〉 Global Cities Index 세부 지표 내용

분야		세부지표	
개인 웰빙	도시 시민의 안정적인 삶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 및 보안 • 의료 서비스의 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NI 계수 지수 • 환경 성능

분야		세부지표	
경제	도시의 경제적 역량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 1인당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I 유입
혁신	도시에서 혁신을 통한 성장력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수 • 민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후원 인큐베이터
거버넌스	도시의 거버넌스 구조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의 질 • 비즈니스 수행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 Kearney의 Global Cities Index 홈페이지의 평가 지표를 국문으로 변환하였음

3) 점수 산정 방식

- (데이터 수집) 국제기구, 국가 및 지방정부 통계,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자료원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문화, 디지털 인프라, 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수집함
- (점수 표준화) 수집된 데이터를 도시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하며, 최소-최대 정규화 방식을 적용하여 최고 성과 도시는 100점, 최저 성과 도시는 0점으로 설정함. 이를 통해 도시 간 상대적 비교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함.
- (지수 산출) 지표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설정하고, 전문가 설문, 계층 분석 기법, 통계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함. 표준화된 지표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하며, 최종 점수는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비교·순위화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나. Mori Memorial Foundation – Global Power Cities Index

1) 평가 지표의 목적과 대상

- GPCI(Global Power City Index)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온 글로벌 도시 평가 체계임
- 주요 목적은 세계 주요 도시의 종합적인 경쟁력과 매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음
- 해당 지표는 도시가 사람·자본·기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도시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 구조를 설명하는 데 활용됨
- GPCI에서 도시 경쟁력은 ‘도시 유인성’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되며, 도시 유인성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됨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 인구 및 인재 유치 역량
 -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이 수 있는 도시의 종합적인 정주 및 생활 여건을 의미함
 - 거주 환경의 쾌적성, 문화 향유 기회, 안전 수준, 교육·의료 서비스의 질 등이 주요 평가 요소에 해당함
 - 정주 여건이 우수한 도시는 국제 인재 이동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됨
 - 투자 및 자본 유치 역량
 - 글로벌 자본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시장 환경을 의미함
 - 경제 규모, 성장 가능성, 비즈니스 환경의 안정성, 금융 인프라 수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에 해당함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춘 도시는 국제 자본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기업 및 산업 유치 역량
 - 기업 활동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의미함
 - 연구개발 기반, 혁신 생태계, 기업 지원 인프라, 숙련 인력 접근성 등이 포함됨
 - 첨단 산업과 글로벌 기업이 선호하는 환경을 갖춘 도시는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큼
- 도시 유인성 지표는 단순한 순위 산출을 넘어 다음과 같은 실질적 활용성을 가짐
- 글로벌 도시 경쟁력의 강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활용 가능함
 - 도시 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비교 자료로 활용 가능함
 - 기업과 투자자의 국제 입지 선택 과정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 가능함
- GPCI는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대상 도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됨
- 주요 글로벌 도시 지표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도시
 -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상위권에 속한 국가의 대표 도시
 - 국제적 영향력, 전략적 중요성, 성장 잠재성이 인정된 도시
-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해 GPCI는 국제적 비교 가능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며, 평가 대상 도시는 글로벌 도시 정책 및 투자 판단에서 주요 벤치마크로 기능함

2) 지표 체계 및 세부 지표 내용

■ 평가 체계 개요

- GPCI는 다차원적 분석 구조를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을 평가함. 최근 기준으로 약 50개 내외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복수의 기능별 영역과 세부 지표 체계로 구성됨
- 평가 과정에는 글로벌 전문가 검토, 제3자 검증,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표 3〉 Global Power Cities Index 세부 지표 내용

분야		세부지표
경제	도시의 글로벌 경제 내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규모 및 시장 잠재력 • 경제 성장 추세 • 인적 자원 경쟁력
연구개발 및 혁신	도시의 기술 혁신 역량과 지식 기반 경쟁력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 보유 여부 • 특허 및 기술 성과 창출 수준 •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지속성 • 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
문화 교류	도시의 국제적 개방성과 문화적 매력도를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행사 및 회의 개최 역량 • 문화 시설의 규모와 질 • 외국인 방문객 유치 수준 •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문화 행사 보유 여부
거주 환경 및 삶의 질	도시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활환경의 질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및 주거비 부담 수준 • 공공 안전과 치안 환경 •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질 • 근무 환경 및 일·생활 균형 여건
환경 지속가능성	도시의 친환경 정책과 지속 가능성 수준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및 수질 관리 수준 • 도시 녹지 및 자연 공간 확보 정도 • 재생에너지 활용 수준과 에너지 효율성 •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순환 정책 수준 •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및 실행 역량 •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관리 노력
교통 및 접근성	도시의 연결성과 이동 효율성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교통망 및 글로벌 연결성 • 도시 내부 교통 인프라의 효율성 • 교통 혼잡 관리 수준 • 공항 및 도심 접근성 •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수준 • 보행자 및 자전거 친화 환경 조성 수준

* Mori Memorial Foundation의 Global Power Cities Index 홈페이지의 평가 지표를 국문으로 변환하였음

3) 점수 산정 방식

- GPCI 점수 산정은 자료 수집, 자료 표준화, 종합 점수 산출의 단계로 구성됨.
 - 자료 수집 단계: 정부 통계, 국제기구 자료, 공공-민간 조사, 연구 결과 등 신뢰성 있는 공식 자료를 활용하고, 일부 지표는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됨
 - 자료 표준화 단계: 서로 다른 단위와 범위를 가진 데이터를 비교 가능하도록 점수화하고, 상대 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점수가 산출됨
 -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과 매력도를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됨

다. EIU - The Global Liveability Index

1) 평가 지표의 목적과 대상

- 글로벌 생활환경지수(Global Liveability Index)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지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와 가장 나쁜 도시를 평가함
- 지정학적, 경제적 불안정성의 심화에 따라 전 세계주요 도시의 생활 여건 변화를 추적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함
- 도시의 인구 규모 및 인지도를 기준으로 약 173개의 주요 글로벌 도시를 평가함
- 비즈니스 가치와 데이터 가용성이 높은 주요 대도시 및 수도 위주로 선정

2) 지표 체계 및 세부 지표 내용

〈표 4〉 Global Liveability Index 세부 지표 내용

분야		세부지표	
정치 및 사회 환경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생활 여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범죄의 유병률 • 폭력 범죄의 확산 • 군사적 충돌의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불안/분쟁의 위협 • 테러의 위협
의료	도시에서 제공하는 공공/민간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 • 민간 의료 제공의 질 • 공공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의료 제공의 질 • 일반의약품의 가용성 • 일반 의료 지표

분야		세부지표
문화 및 환경	도시의 문화 생활 및 기후 등 환경 여건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습도/온도 등급 (연평균 기온), 여행자에게 불편함 문화적 어려움: 부패, 사회적/종교적 제한, 검열 수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 음식 및 음료 소비재 및 서비스의 가용성
교육	도시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품질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교육의 가용성 사교육 제공의 질 일반 공교육 지표 인천의 국내 학교 일반 공교육 지표 인천에 있는 외국인 학교
인프라	교통, 주택 등 도시 인프라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 도로망의 품질, 대중교통의 품질 운송: 지역 또는 국제 링크의 품질 양질의 주택 가용성 유틸리티: 물 공급의 질, 통신 인프라의 품질, 에너지 공급 품질

* EIU의 The Global Liveability Index 홈페이지의 평가 지표를 국문으로 변환하였음

3) 점수 산정 방식

- 각 지표는 수용 가능, 견딜만함, 불편함, 바람직하지 않음 또는 견딜 수 없음으로 평가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1~100까지 점수 산출되며,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 도시의 순위 선정

라. Mercer - Quality of Living Index

1) 평가 지표의 목적과 대상

- Quality of Living Index(QLI)는 미국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 머서(Mercer)가 만든 도시 생활 만족도 순위임
- 해외 파견 근무자의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도시 환경을 분석하며 다국적 기업의 인력 이동 시 참고하는 삶의 질 조사임
-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생활 여건을 정치, 경제, 환경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순위 부여
-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파견 직원의 보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 해외 거주 시 겪는 실질적인 삶의 질 차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해외로 파견하는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재 유지를 위해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가 필요해짐에 따라 고안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 주재원의 파견이 잦은 약 241개 도시

- 5개 대륙의 주요 거점 도시를 포함하며, 뉴욕을 기준점(100점)으로 삼아 상대적인 삶의 질 평가

2) 지표 체계 및 세부 지표 내용

○ 정치 및 사회 환경,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의료 및 건강, 학교 및 교육, 공공 서비스 및 교통, 오락, 소비재, 주택, 자연환경 전 분야에 걸쳐 도시의 질 평가

〈표 5〉 Quality of Living Index 세부 지표 내용

분야		세부지표	
정치 및 사회 환경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와의 관계 • 내부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 법 집행 기관 출입 용이성
경제 환경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외 파견 근무자의 삶의 질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서비스
사회문화적 환경	문화적 환경 및 자유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와 검열
의료 및 건강 고려사항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및 도시의 환경적인 건강 고려사항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서비스 • 의료용품 • 전염병 • 물 음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제거 • 하수 • 대기 오염 • 유해 동물·곤충
학교 및 교육	도시의 교육 환경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학교
공공 서비스 및 교통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공공 서비스와 교통의 질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 물 가용성 • 전화 • 우편 •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혼잡도 • 공항: 여행 가능 도시 수 • 공항: 연간 승객 수 • 공항: 연간 항공편 수
오락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의 질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레스토랑 • 연극 및 음악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관 •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소비재	도시의 소비재의 질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고기 및 생선) • 식품(과일 및 채소) • 일일 소비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음료 • 자동차
주택	도시의 주택 및 가구, 주거 환경에 대해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 가전 제품 및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유지 보수 및 수리
자연환경	도시 자연환경을 삶의 질 관점에서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기록

* Mercer의 Quality of Living Index 홈페이지의 평가 지표를 국문으로 변환하였음

3) 산출방법

- (기준 도시 설정) 미국 뉴욕을 기준점(100점)으로 선정하고 상대적인 생활 여건을 평가함
- (데이터 업데이트) 정치, 경제, 환경적 중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정 및 보완하여 최신성 유지
- (정성적 데이터 수치화) 삶의 질에 대한 정성적 데이터를 정량화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공

마. Institute for Quality of Life – Happy City Index

1) 평가 지표의 목적과 대상

- Happy City Index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Institute for Quality of Life가 개발한 글로벌 도시 행복도 평가 지표임
- 현대 도시가 직면한 복합적인 사회·경제·환경 문제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정책과 성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도입됨
- 기존의 경제 성과 중심 도시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웰빙,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공공서비스의 질 등 시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도시의 제도, 정책, 실행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행복 중심 지표로 운영됨
- 도시별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정책, 환경, 제도, 혁신적 실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도시 리더십과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글로벌 도시 간 벤치마킹을 통해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함
-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버넌스, 환경, 경제, 건강, 시민 참여, 이동성 등 다양한 요인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도시의 단기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25년 기준 전 세계 약 200개 도시가 평가 대상에 포함됨. 한국의 서울, 부산, 울산, 인천을 비롯하여 코펜하겐, 취리히, 싱가포르, 뉴욕, 스톡홀름 등 주요 글로벌 도시가 포함됨
- 평가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도시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데이터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평가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함

2) 평가 방법 및 지표 체계

- 2025년 평가는 총 82개 세부 지표를 26개 도시 활동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지표는 국제 통계 자료, 현지 설문조사, 공식 행정 통계, 도시별 정책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출됨
- 2025년부터는 건강(Health) 영역이 신규로 포함되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안전, 영양 상태, 일-생활 균형 등 시민의 실질적 웰빙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어 긍정적인 정책과 성과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정책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실제 문제점까지 평가에 반영함
- 평가 결과는 종합 점수에 따라 Gold(상위 31위), Silver, Bronze 등급으로 구분하여 도시의 상대적 행복 수준과 성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함
- Happy City Index 2025의 평가지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시민(Citizens): 교육 수준, 사회적 포용 정책, 혁신·창의성 환경, 문화·여가 접근성,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관계 형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거버넌스(Governance):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시민 참여 수준, 공공서비스의 질, 혁신적 행정 역량, 도시 비전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환경(Environment): 도시 녹지와 공원 접근성, 대기질 관리 수준, 폐기물 관리 체계, 에너지 정책,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전반적인 환경 지속가능성을 평가함
 - 경제(Economy): 도시의 생산성과 임금 수준, 창업 및 혁신 환경, 고용 안정성, 경제적 포용성과 기회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건강(Health):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질, 범죄 및 교통 안전, 영양 환경, 일-생활 균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이동성(Mobility):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효율성, 교통 안전 수준,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여부, 도시 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점수 산정 방식

- 각 주요 영역은 안전, 공원 접근성, 주거비 부담, 사회적 신뢰, 공공의료 접근성 등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점수화되며, 이를 종합하여 도시별 행복 수준을 산출함

제3절 인천시 도시경쟁력 지표 보완

가. 공백지표 보완 추진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 공개된 도시경쟁력 지표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데이터 및 공개된 해외 지표를 활용하여 데이터 공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실시함

- 지표별 데이터 확보 현황:

- GCI (Global Cities Index): 총 29개 지표 중 23개를 확보하여 확보율 79.3% 달성 (자체수집 2건 포함)
- GCO (Global Cities Outlook): 총 14개 지표 중 10개를 확보하여 확보율 71.4% 달성
- GPCI (Global Power City Index): 총 79개 지표 중 66개를 확보하여 가장 높은 확보율(83.5%)을 기록함
- QLI 및 GLI: 정성지표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데이터 확보율이 낮게 나타남(각각 32.6%, 32.3%)

- 미확보 지표 대응: 공공데이터로 보완이 불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의 협조를 통해 확보 가능한 경로를 추정하고 대체 데이터를 마련함

- 확보 가능 경로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데이터의 유무 및 수집 가능 범위 등을 협의해야 함
- 대체 데이터는 도시경쟁력 지표 평가기관에서 정성지표로 평가하는 데이터에 대해 정량적 지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지표임

나. 홈페이지 지표 보완 내역

1) 홈페이지 내 공백지표 보완 결과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Incheon Metropolitan City)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Global City Competitiveness Index) 중 공백 지표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백지표를 일부 보완함

〈표 6〉 공백지표 확보 현황

지표명	인천시 자체 수집 데이터 수	용역사 보완 데이터 수	필요 데이터 수	보완 후 데이터 확보 비율
Global Cities Index	21	2	29	23/29 (79.3%)
Global Cities Outlook	8	2	14	10/14 (71.4%)
Global Power City Index	40	26	79	66/79 (83.5%)
Quality of Living Index	11	3	43	14/43 (32.6%)
The Global Liveability Index	8	2	31	10/31 (32.3%)

* 일부 지표는 한 지표에 2개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표 1〉의 총 세부지표 수와 필요 데이터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데이터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가능한 경우만 기재하였음
 *** Quality of Living Index와 Global Liveability Index의 경우 전문가 의견과 설문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정성지표 수가 많아 타 지표 대비 데이터 확보 비율이 낮음
 **** 공백지표 확보 현황은 엑셀 파일 형태로 인천광역시에 전달

2) 공백지표 보완 방안 제시

○ 공백지표 중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부 지표의 확보 및 대체 방안에 대해 제시함

- 정량지표는 유관 기관 등 요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를 통한 보완 방안을 제시함
 - 중·장기적으로 현재 공백지표 상태인 데이터의 명확한 통계출처를 데이터 확보 체계에 기입하고, 주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한 보완 제안
- 정성지표는 대체 및 활용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에 대해 제시하였으나 실제 도시경쟁력 지표 상에는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시경쟁력 평가기관에서 활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래의 목적으로 활용
 - 정량적인 수치로 대체하여 인천광역시 자체 진단이나 타 도시 비교 진단으로 활용
 - 글로벌 도시경쟁력 기관 홍보자료, 인천광역시 홍보 책자 등 간행물 제작에 활용

〈표 7〉 정량지표 확보 방안

평가명	분야	지표	데이터 수집·산출 방안	통계출처(추정)
GCI	정보 교환	브로드밴드 가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인프라 현황' 통계에서 인터넷/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인구 대비 비율로 산출	과기정통부 통신인프라현황 통계
	문화체험	스포츠 이벤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체육 시설 현황과 연간 스포츠 행사 개최 건수를	문체부 체육시설 현황, 스포츠

평가명	분야	지표	데이터 수집·산출 방안	통계출처(추정)
			통해 정량화	행사 개최 수 등
	정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지 기관	인천시에 본사 또는 주요 지부를 둔 글로벌 컨설팅/회계/법률 기업의 수, 글로벌 NGO 본부 수 등을 직접 조사하여 리스트화	인천시 기업통계
	정치	정치 회의	인천시에서 개최된 주요 국제 회의 (예: GCF 등) 중 정치/외교 관련 회의의 연간 건수를 인천관광공사(MICE) 자료를 통해 확보	인천관광공사 통계
GCO	혁신	민간 투자	인천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액(산업통상자원부)과 지역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 총액을 합산하여 산출	민간투자통계
	혁신	대학 후원 인큐베이터	인천RISE센터 공식 통계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창업기업 수를 연도별로 확보	인천 RISE센터 통계 등
GPCI	연구 및 개발	학업 성취도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또는 OECD의 PISA 결과 중 지역별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대학 입시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표화	교육부, PISA
	거주 가능성	소매점 수 / 레스토랑 수	통계청의 서비스업 조사 통계에서 인천 지역의 소매업 및 음식점업 사업체 수를 확보	인천시 소매업, 음식점업 수 등
	접근성	스테이션 밀도	인천시의 지하철/버스 정류장 총 개수를 도시 면적(km ²)으로 나누어 정량적인 밀도를 산출	인천시 정류장 수
QLI	정치 및 사회 환경	범죄	경찰청의 범죄 통계 연보에서 인천 지역의 연간 총 범죄 발생 건수를 확보	경찰청 통계연보, 범죄구분별 통계
	의료 및 건강 고려 사항	전염병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포털에서 주요 감염병(예: 독감, 코로나)의 인천 지역 발생률을 확보	질병관리청 지역별 전염병 발생률
GLI	정치 및 사회 환경	경범죄 발생률	경찰청 통계에서 '재산 범죄(절도 등)' 및 '경미한 범죄' 발생 건수를 확보하고 인구 대비 비율을 산출	경찰청 경범죄 통계
	정치 및 사회 환경	폭력 범죄의 확산	경찰청 통계에서 '강력 범죄(살인, 강도 등)' 발생 건수를 확보하고 인구 대비 비율을 산출	경찰청 강력범죄 통계

〈표 8〉 정성지표 확보 방안

평가명	분야	데이터확보방안
GCI GCO	안정성 및 보안	경찰청의 범죄율(살인, 폭력) 및 사망률 지표 종합하여 산출
GCO	인프라	통신 인프라 지수' 및 '전력 공급 안정성' 지표 활용하여 산출
GPCI	도시 청결에 대한 만족도	인천시의 '폐기물 재활용률' 및 하수 처리율 등 활용, 산출
QLI	전기 (공공 서비스 품질)	한국전력공사(KEPCO)의 정전 횟수 및 시간 통계
	우편 (공공 서비스 품질)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배달 정시율
	물 음용성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활용
	대중교통 / 교통 혼잡	인천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및 대중교통 노선 밀도 데이터 활용
GLI	교통: 도로망의 품질	국토교통부의 도로 포장률 및 노후도 통계 활용
	유틸리티: 에너지 공급 품질	한국전력공사(KEPCO)의 전력 공급 안정성 데이터 활용

다. 인천광역시 통합 도시경쟁력 지표 생성

- (개발 목적) 해외 기관별 평가지표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이 많아 개별 관리 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데이터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지표 생성 이점)
 - 편향성 제거: 다양한 도시경쟁력 지표의 필요 데이터를 통합하여 도시경쟁력의 다차원적인 평가 가능
 - 리스크 관리: 인천광역시에 불리한 지표들에 대해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 도출이나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 통합 프로세스

- 1단계: 5대 글로벌 지표(GCI, GCO, QLI, GPCI, GLI) 및 Motion Index를 분석하여 중복·유사 지표를 제거함
- 2단계: 유사 분야를 그룹핑(Grouping)하여 10개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총 107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통합 도시경쟁력 지표'를 확정함
 - 통합 지표 구성 (10개 분야, 107개 지표)
 - 1.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17개): 경제 규모, 고용 환경 등
 - 2. 인적 자원 및 교육 (13개): 인적 자원 역량, 교육 수준 등

- 3. 혁신 및 스타트업 생태계 (5개): 창업 지원, R&D 투자 현황 등
- 4. 사회적 안정성 및 포용성 (14개): 사회적 안정성 관련 해외 인용 지표 등
- 5. 보건 및 공중위생 (12개): 의료 인프라 및 보건 관련 통계
- 6. 문화, 여가 및 관광 (10개): 문화공간, 관광 명소 수 등
- 7. 환경 및 지속가능성 (11개): 공기 질, 녹지율, 재활용률 등
- 8. 도시 인프라 (8개): 차량 개수, 지하철 인프라 등
- 9. 국제 연결성 및 이동성 (7개): 공항 통계, 국제 화물 처리량 등
- 10. IT 및 디지털 (10개): 인터넷 보급률, 전자정부 순위 등

- 실제 도시경쟁력 평가 시 해외 기관의 지수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 차용함
- 정성지표 및 정의가 필요한 지표 20개를 분리하여 표기하였으며, 통합 도시경쟁력 지표의 지속적 보안을 통해 지표 추가 제안
 - 예) 2026년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기관에서 신규 지표 생성 시 추가
 - 분리한 지표는 통합 도시경쟁력지표 하단에 별도 기재

〈표 9〉 인천광역시 통합 도시경쟁력 지표

연번	분야구분	지표구분	단위	출처	기준연도	인천시 통계 현황
1	1.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명목 GDP	억 달러	한국은행	2024	18,745.6
2		국가 인구 수	백만 명	KOSIS	2024	51.8
3		1인당 GDP	달러	KOSIS	2024	35,681.0
4		GDP 성장률	%	KOSIS	2024	2.0
5		주식 시가총액	조원	한국 거래소	2025	3,300.00
6		경제활동인구 수	명	KOSIS	2025	1,769,000
7		실업률	%	KOSIS	2025	3.2
8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업 종사자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K/L/M/N 업종별 근로자)	천명	KOSIS	2023	228
9		월 평균 임금	원	KOSIS	2025	3,683,232
10		최저임금	원	최저임금위원회	2026	10,320
11		(국가단위)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법인세율)	%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25	66.3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연번	분야구분	지표구분	단위	출처	기준연도	인천시 통계 현황
12		Moody's - Credit Rating	등급	Moody's - Credit Rating	2025	Aa2
13		총 근무 시간	시간	KOSIS	2025	174.6
14		글로벌 서비스 기업 수	개	-	-	-
15	2. 인적 자원 및 교육	(국가단위) 세계 인재 경쟁력 지수	점수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25	58.08
16		(국가단위) English Proficiency Index 순위	순위	English Proficiency Index(EF)	2025	522
17		연구원 수	명	KOSIS	2023	22,179
18		세계 최고의 대학 (QS / ARWU / THE 순위권 내 대학 수)	개	QS / ARWU / THE	2025	1(QS) / 1(ARWU) / 2(THE)
19		유학생 수	명	KOSIS	2024	7,397
20		학교 수 (유/초/중/고)	개	인천교육청	2025	936
21		(국가단위) 고졸 이상 인구 비율	%	OECD	2025	52.8
22		석사 이상 인구 수	명	인구총조사	2020	66,070
23		대학 수	개	KOSIS	2025	7
24		의과대학 수	개	인하대,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2025	2
25	3. 혁신 및 스타트업 생태계	특허 수	개	지식재산통계연보	2024	246,245
26		민간 투자 비용	-	-	-	민간투자사업 투자금
27		유니콘 기업 수	-	-	-	-
28		R&D 비용 (인천시)	원	인천 R&D 관리시스템	2024	192,355,000,000
29		과학기술상 수상자	-	-	-	노벨상 수상자
30	4. 사회적 안정성 및	(국가단위) 민주주의 지수	순위	The Economist	2024	32

연번	분야구분	지표구분	단위	출처	기준연도	인천시 통계 현황	
		순위					
31	포용성	(국가단위) 현대판 노예 지수	점수	Global Slavery Index	2025	3.53	
32		(국가단위) 세계 평화 지수	점수	Global Peace Index	2025	1.74	
33		(국가단위) 부패인식지수 (CPI)	점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24	64	
34		(국가단위) 인종차별순위	순위	Most Racist Countries	2025	85	
35		범죄율	건/ 10만 명	범죄분석통계	2024	3,289.10	
36		살인 건수	건	KOSIS	2024	8	
37		폭력 범죄 수	건	KOSIS	2024	13,456	
38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	-	-	인천데이터포털	
39		(국가단위) 사회적 자유 지수	점수	Freedom House	2025	81	
40		성별 격차 정도 점수	점수	World Economic Forum - Global Gender Gap Report	2025	0.687	
41		5. 보건 및 공중위생	0세 기준 수명	세	KOSIS	2023	83.1
42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명	KOSIS	2024	628.9
43	자살 시도 횟수		명	KOSIS	2024	935	
44	1, 2급 감염병 발생량		명	지표누리	2024	152,586	
45	비만율		%	KOSIS	2025	35.9	
46	당뇨병 환자 수		명	KOSIS	2024	259,860	
47	의사 수		명	HIRA	2025	8,528	
48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		명	HIRA	2025	193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연번	분야구분	지표구분	단위	출처	기준연도	인천시 통계 현황	
49		병원 개수	개	인천데이터포털	2025	3,787	
50		병상 수	개	HIRA	2025	35,331	
51		약국 수	개	HIRA	2025	1,314	
52	6. 문화, 여가 및 관광	문화콘텐츠 수출액	억달러	International Trade Centre	2024	1,210,750	
53		박물관 및 미술관 수	개	전국문화 인프라연감	2024	60	
54		영화관 수	개	영화관입장권통합 전산망	2025	29	
55		(국가단위) 연간 외래 방문객 수	명	KOSIS	2024	18,936,562	
56		자매 도시 수	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2025	22	
57		연간 연극 및 음악 공연 수	회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2025	796	
58		세계문화유산 수	개	국가유산포털	2025	1	
59		호텔 객실 수	개	한국관광데이터랩	2024	12,755	
60		(5성급) 럭셔리 호텔 객실 수	개	한국관광데이터랩	2024	3,759	
61		7. 환경 및 지속가능성	공기질 (PM2.5)	μg/m ³	지표누리	2024	19
62			하수도 보급률	%	지표누리	2024	95.6
63			생활폐기물 배출량	톤	KOSIS	2023	1,522,181
64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천 톤	인천탄소중립포털	2020	46,575.70	
65	재활용률		%	KOSIS	2023	86.9	
66	연평균 기온 (3개년)		℃	기상청	2023 - 2025	13.7	
67	수질		점수	Numbeo 평가점수	2025	71.43	
68	도시 녹지		점수	Numbeo 평가점수	2025	50	
69	전기차 충전소 수		개	인천데이터포털	2023	102	
70	자연재해 피해액		천원	KOSIS	2024	1,305,836	
71	8. 도시		(국가단위)	점수	Network	2025	72.38

연번	분야구분	지표구분	단위	출처	기준연도	인천시 통계 현황
	인프라	네트워크 준비 지수		Readiness Index		
72		지하철 길이	km	인천교통공사	2025	66.2
73		지하철역 개수	개	인천교통공사	2025	60
74		교통사고 사망자 수	회	KOSIS	2024	8,089
75		자동차 수	개	인천광역시	2025	1,748,830
76		(국가단위) ITU ICT 발전지수	순위	지표누리	2017	2
77	9. 국제 연결성 및 이동성	국제선 직항하는 도시	개	인천국제공항	2025	178
78		공항까지의 이동 시간	시간	인천시청-인천국제공항 대중교통 이동 시간	2025	1
79		평균 통근 시간	분	KOSIS	2025	31.4
80		항만 물동량	TEU	인천항만공사	2024	3,558,328
81		연간 항공편 수	편	항공통계	2025	425,760
82		연간 항공 승객 수	명	항공통계	2025	73,752,582
83		연간 항공 화물 양	톤	항공통계	2025	4,032,060
84	10. IT 및 디지털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	%	지표누리	2024	82.5
85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	%	지표누리	2024	77.2
86		온라인 서비스 지수	순위	지표누리	2024	1
87		(국가단위) UN 전자정부평가 순위	순위	지표누리	2024	4

〈표 10〉 인천광역시 종합 도시경쟁력 지표에서 제거한 지표

구분	분야	지표	지표구분
1	1.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환전 규정	정성지표
2		부동산 대출	정성지표
3		자본 시장	정성지표
4	2. 인적 자원 및 교육	학업 성취도	정성지표
5		사교육의 이용 가능성	정성지표
6		사교육의 질	정성지표
7	4. 사회적 안정성 및 포용성	다른 나라와의 관계	정성지표
8		국가 안정성	정성지표
9		경범죄 발생률	정성지표
10	5. 보건 및 공중위생	귀찮고 파괴적인 동물과 곤충	정성지표
11	6. 문화, 여가 및 관광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정성지표
12	7. 환경 및 지속가능성	도시 청결에 대한 만족도	정성지표
13	8. 도시 인프라	도로망의 질	정성지표
14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의 용이성	정성지표
15	10. IT 및 디지털	모바일 광대역	지표 정의 필요
16		모바일 사용자 비중	지표 정의 필요
17		SNS 등록자 수	지표 정의 필요
18		브로드밴드 구독자	지표 정의 필요
19		통화서비스	정성지표
20		전화, 인터넷 서비스	정성지표

* 본 지표는 인천광역시 통합 도시경쟁력 지표에 포함된 정성지표, 지표 정의가 필요한 지표들이며 해외 도시경쟁력지표에서 활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전문가 의견 활용 및 시민 설문 등을 통해 보완 제안

라. 데이터 확보 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 도시경쟁력 통합 지표를 기반으로 데이터 확보 체계를 구축하였음

- 각 지표를 데이터 타입별로 분류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지속적으로 도시경쟁력 데이터 수집·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데이터 확보 체계는 엑셀을 활용하여 담당자 변경 시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으며 지속적 보완 및 고도화로 중장기적인 활용 제안

〈표 11〉 데이터 확보 체계 구성

구분	데이터 타입	구성	비고
1	Type A	국내 공공데이터를 통해 확보 가능 업데이트 주기에 맞춰 최신화 작업 수행	직접수집에 용이
2	Type B	해외 기관 데이터 인용 자체 수집을 위한 링크, 보고서명 등 정보 기입	링크, 보고서 등 수집 요령 기재
3	Type C	유관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담당 기관 지정 협의 필요
4	Type D	Type C 중 입력 서식 제작이 필요한 데이터	향후 현행화 주기 등 구성 필요
5	Type E	정성지표 확보, 대체, 수집 방안 및 지표 해석 논의 필요	-

* 데이터 확보 체계는 엑셀 파일로 구성하여 인천광역시에 전달

제3장

03

선진도시 벤치마킹

제1절 벤치마킹 도시 선정

제2절 벤치마킹 후보 도시 선정

제3절 벤치마킹 대상 선진도시와 도시경쟁력 비교

(빈페이지)

03

선진도시 벤치마킹

제1절

벤치마킹 개요

가. 벤치마킹 추진 체계

1) 벤치마킹 추진 방향

- 벤치마킹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설정함
 - 기준 마련: 벤치마킹 대상이 될 선진 도시 선정에 위한 객관적 기준 수립
 - 심층·비교 분석: 삶의 질 지표 및 평가 항목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분석 추진
 - 강화방안 도출: 분석 데이터 기반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글로벌 삶의 질 지표 평가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선진도시 간의 심층 비교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시사점을 도출함
- 각 지표의 평가목적, 평가영역 구성, 영역별 지표, 평가방식, 주요 평가결과를 다각도로 분석

2) 벤치마킹 프로세스

■ 선진 사례 선정 및 사례 조사

- (기초 데이터 반영 및 방향 설정) 글로벌 도시 경쟁력 수준 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선진 도시 벤치마킹의 기본 방향을 도출함
 - 선정 기준 제시: 벤치마킹 대상 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선진 도시 선정: 수립된 기준에 따라 최종 벤치마킹 대상 도시를 확정
 - 사례 분석 실시: 선정된 도시들(사례 A, 사례 B, 사례 C 등)에 대한 본격적인 사례 연구 진행

■ 지표 도출 및 심층 분석

- (세부 항목 도출) 글로벌 삶의 질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세부 평가 항목 선정
- (비교 분석 수행)



- 선진 도시 대상의 심층 분석 진행
- 선진 도시와 인천시 간의 지표별 비교분석 실시
- 시사점 도출 (핵심 단계): 선진도시 대비 인천시가 가진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최종 결과 도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인천시 도시 경쟁력 강화 방향' 수립

나. 벤치마킹 구조

■ 1·2차 벤치마킹 선정과정

- 1차 선정은 Mercer의 Quality of Living Index (QLI) 상위 100개 도시를 모집단으로 하여 진행
 - 대상 제외: 기존에 이미 분석이 완료된 도시, 국내 도시
 - 유사성 조사: 인천시와의 구조적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중점적으로 조사
 - 지표 순위 파악: 해당 도시들의 주요 도시경쟁력 지표 순위를 파악하여 기초 후보군을 압축
- 2차 선정은 1차에서 선별된 도시들에 더해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 상위권 도시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 대상지를 확정
 - 활용 지표: GCI(Kearney), GCO(Kearney), GPCI(모리재단), QLI(Mercer), GLI(EIU), OX(Oxford Economics) 등 총 6개 주요 지표를 복합적으로 활용
 - 최상위권 도시 조사: 각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별로 최상위권에 포진한 도시들을 전수조사
 - 개별 심사 진행: 특히 '삶의 질'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거나 특화된 강점을 가진 도시를 중심으로 개별 심사를 진행
 - 강점 파악 및 키워드화: 최종 후보 도시별로 '삶의 질' 측면의 핵심 강점을 파악하고, 1·2차 벤치마킹 각 도시별 특성을 키워드화하여 분석의 효율성 제고

■ 벤치마킹 활용방안 추출과정

- (도시별 핵심 키워드 추출 프로세스) 개별 도시의 방대한 데이터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침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 1단계: 대상 도시 리스트업
 - 1·2차 벤치마킹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선진 도시 목록을 바탕으로 분석
- 2단계: 삶의 질 부문 강점 파악 및 키워드화
 - 각 도시가 '글로벌 삶의 질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구체적인 이유와 핵심적인 강점 파악
 - 파악된 강점은 정책적 논의가 용이하도록 압축적인 '키워드' 형태로 정의
- 3단계: 세부지표 매칭 및 활용방안 마련
 - 도출된 키워드와 유사성이 높은 도시경쟁력 세부지표를 추출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
 - 이를 통해 도시 강점(키워드)별로 차별화된 벤치마킹 활용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

○ (유사 키워드별 그룹화 및 체계적 관리) 향후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벤치마킹 결과를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추출된 키워드들을 유사한 성격에 따라 그룹화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

- 데이터 구성 요소: 단순 도시명뿐만 아니라 도시명, 핵심 키워드, 키워드에 대한 상세 설명, 연관된 유사 지표 등으로 상세하게 구성
- 4대 핵심 그룹화 사례
 - 주거안정 그룹: 도시의 정주 여건과 주거 복지에 특화된 사례군
 - 환경/기후 그룹: 탄소 중립, 녹지 확보 등 기후 위기 대응에 강점을 가진 사례군
 - 교통혁신 그룹: 스마트 모빌리티, 대중교통 체계 혁신 등을 선도하는 사례군
 - 경제 재생 그룹: 쇠퇴한 도심의 경제적 활력을 회복한 사례군

제2절 벤치마킹 후보 도시 선정

가. 벤치마킹 도시 선정 프로세스

- 대규모 도시 후보군 선정 및 기초 자료 수집
 - 기초 모집단: Mercer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ving Index, QLI) 상위 100위 도시를 기본 분석 대상으로 수집함.
 - 선정 목적: 글로벌 수준에서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이 검증된 도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임.
- 2. 단계별 필터링(Filtering)
 - ① Filter A: 제외 기준 적용 (Exclusion)
 - 기분석 도시: 인천연구원 등에서 이미 심층 연구가 완료되어 중복성이 있는 도시 제외
 - ② Filter B: 도시별 정보 파악 및 적합 기준 검토 (Suitability)
 - 인천광역시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 도시 파악
 - 도시 인구 규모, 물류·산업 구조(인천시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 중심 구조와 공항 존재 여부), 공공데이터 포털 존재 여부 등 도시별 조건 검토
 - ③ Filter C: 타 지표 순위 파악 및 다각적 검토(Cross-Check)
 - QLI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도시 지표에서의 성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후보를 선별함
 - Global Cities Index / Global Cities Outlook
 - Global Power City Index
 - Quality of Living Index
 - The Global Liveability Index
 - Innovation Cities Index
 - Motion Index

나. 벤치마킹 도시 선정결과

- 각 도시의 경쟁력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글로벌지표 데이터를 대조군으로 활용
 - GCI (Kearney): Global Cities Index
 - GCO (Kearney): Global Cities Outlook
 - GPCI (Mori): Global Power City Index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 QLI (Mercer): Quality of Living Index
- GLI (EIU): The Global Liveability Index
- GCI(Oxford Economics): Global City Index

○ (1차 벤치마킹 도시별 지표 순위 및 핵심 키워드) 1차로 선정된 12개 주요 도시의 지표별 등수와 벤치마킹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표 12〉 1차 선정 12개 도시 주요지표별 순위 및 벤치마킹 키워드

대상 도시	주요 지표 순위(순위)						벤치마킹 핵심 키워드(강점)
	QLI	GLI	GPCI	GCI	GCO	GCI (OX)	
토론토	13	10	24	13	24	20	수직 커뮤니티, 가족 친화 조례
브뤼셀	40	17	26	17	47	34	펜타곤 보행화, 통과교통 차단
시카고	66	49	-	10	45	24	기대수명 평등, 지역 재투자
LA	44	63	22	9	39	11	70% 내부 충전, 자족 지구
나고야	74	-	-	81	35	202	역사 경관 보존, 역세권 대개조
휴스턴	65	62	-	32	52	30	스펀지 도시, 선형 공원
브리즈번	36	17	-	-	-	23	그린 브릿지, 숨 쉬는 건물
퍼스	20	12	-	72	27	31	캐노피 30%, 도시 쿨링
버밍엄	57	-	-	-	-	110	무료 대중교통, 국경 연결
로테르담	-	52	-	-	-	65	워터 광장, 옥상 공원
함부르크	28	13	-	-	-	39	하펜시티(수변), 녹색 그물망
밀란	42	32	31	30	28	82	수직 숲, 나무 300만 그루

* 각 순위는 2024년 순위 반영 (GCI, GCO는 벤치마킹 과정 중 보고서 출간으로 2025년 기준)

○ (2차 벤치마킹 도시별 강점 및 특화 키워드) 2차 벤치마킹 도시들의 주요 지표별 등수와 벤치마킹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표 13〉 2차 선정 9개 도시 주요지표별 순위 및 벤치마킹 키워드

도시명	주요 지표 순위(순위)						벤치마킹 핵심 키워드(강점)
	QLI	GLI	GPCI	GCI	GCO	GCI (OX)	
파리	34	34	4	3	15	3	15분 도시, 자전거 혁명
비엔나	2	1	15	25	38	36	사회주택 60%, 세입자 보호
퀄거리	25	3	-	-	-	61	7~9년 택지 확보, 완전한 커뮤니티
산호세	112	90	-	-	-	4	어반 빌리지, 직주 균형

도시명	주요 지표 순위(순위)						벤치마킹 핵심 키워드(강점)
	QLI	GLI	GPCI	GCI	GCO	GCI (OX)	
시애틀	52	50	-	52	48	5	업조닝(Up-zoning), MHA 펀드
캔버라	29	-	-	-	-	52	대중교통 커뮤니티, 주차장 상한제
베르겐	-	-	-	-	-	55	건축 금지선, 10분 자연
룩셈부르크	17	16	-	79	19	32	녹색 복지, 도로 다이어트
베른	9	-	-	-	-	48	비영리 주택 50%, 소셜 믹스

* 각 순위는 2024년 순위 반영 (GCI, GCO는 벤치마킹 과정 중 보고서 출간으로 2025년 기준)

- Grouping 실시: 도출된 도시별 강점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거 안정, 환경/기후, 교통 혁신, 경제/재생의 4개 분야로 그룹화(Grouping)를 진행
- 전략적 활용: 각 도시별 강점과 유사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세부지표를 매칭하여, 인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에 대해 가장 적합한 벤치마킹 모델을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체계적 구조를 마련

다. 벤치마킹 후보 도시 분야별 강점 및 연관 세부지표

1) 주거안정 분야

■ 캘거리(Calgary)

- 7~9년 치의 즉시 개발 가능한 택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외곽 신도시 조성 시 직주근접과 생활 편의를 모두 갖춘 '완전한 커뮤니티' 모델을 지향함

■ 비엔나(Vienna)

- 전체 시민의 60% 이상이 시 영구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공공 중심의 주거 모델을 운영하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화함

■ 베른(Bern)

- 신규 주택 개발 부지의 50%를 비영리 주택협동조합에 할당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기 방지 및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한 지역에 어우러져 사는 '소셜 믹스' 구현을 의무화하고 있음

■ 시애틀(Seattle)

- 단독주택 위주의 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업조닝'을 통해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개발 이익 환수제(MHA)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을 운용 중임

■ 시카고(Chicago)

- 부촌과 소외 지역 간의 기대수명 격차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남부 및 서부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인프라 예산과 투자를 집중하여 지역 불균형을 개선함

■ 토론토(Toronto)

- 도심 내 초고층 빌딩 건설 시 내부에 학교, 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직 커뮤니티' 정책을 추진하고, 도심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인프라 규정을 시행 중임

〈표 14〉 주거안정 관련 벤치마킹 후보도시

도시	키워드	설명	연관 세부지표	지표	기관
캘거리	7~9년 치 택지 확보	7~9년 치의 즉시 개발 가능한 택지 선제적 확보	양질의 주택 가용성	GLI	EIU
	완전한 커뮤니티	외곽 신도시도 직주근접과 생활 편의를 갖춘 완전한 커뮤니티로 개발	통근 시간	GPCI	Mori
비엔나	사회주택 60%	시민의 60% 이상이 시 영구임대주택 등에 거주	주택 임대료	GPCI	Mori
	세입자 보호	소득과 무관하게 고품질 주거를 제공하여 주거비 안정화	주택	QLI	Mercer
베른	비영리 주택 50%	신규 개발지의 50%를 비영리 주택협동조합에 할당	주택 임대료	GPCI	Mori
	소셜믹스	투기 방지 및 다양한 소득 계층의 혼합 거주 의무화	GINI 계수 지수	GCO	Kearney
시애틀	업조닝	단독주택 지역 규제를 풀어 고밀도 개발 허용	관료주의의 질	GCO	Kearney
	MHA 펀드	개발 이익 환수(MHA)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 자원 의무 확보	민간 투자	GCO	Kearney
시카고	기대수명 평등	부촌과 빈촌의 기대수명 격차 해소를 시정 최우선 목표 설정	수명	GPCI	Mori
	지역 재투자	소외 지역(남/서부)에 인프라 예산 집중 투자	인프라	GCO	Kearney
토론토	수직 커뮤니티	초고층 빌딩 내 학교, 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물을 하나의 입체적 마을로 조성	사교육의 가용성	GLI	EIU
	가족친화 조례	도심 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2세대 이상 가구 비율 및 인프라 규격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학교	QLI	Mercer

2) 환경·기후 분야

■ 베르겐(Bergen)

- 도시 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 금지선'을 설정하여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녹지 환경을 구축하고, 도보 10분 내에 자연 녹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로테르담(Rotterdam)

- 폭우 시에는 저류지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워터 광장'을 곳곳에 배치하고 부족한 지상 녹지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건물의 상부를 공원화하는 '옥상 공원' 정책을 통해 입체적인 녹지 생태계를 조성함

■ 휴스턴(Houston)

-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 도시' 개념을 도입,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연결하여 거대한 녹지 축인 '선형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열섬 현상 완화와 배수 능력을 동시에 확보함

■ 밀란(Milan)

- 고층 빌딩 외벽에 수천 그루의 나무와 식물을 심는 '수직 숲(Bosco Verticale)' 건축 모델을 확산시키고, 도시 전역에 2030년까지 나무 300만 그루를 심는 프로젝트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생물 다양성 회복에 집중하고 있음

■ 퍼스(Perth)

- 도시 전체의 가로수 및 녹지 덮개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캐노피 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도시 쿨링' 효과를 극대화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함

■ 버밍엄(Birmingham)

- 도시의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녹지 축을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 비율을 상승시키는 '녹색 복지'를 이뤄냈으며 사회적 약자 거주지를 선별하여 도로가 아닌 숲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

〈표 15〉 환경·기후 관련 벤치마킹 후보도시

도시	키워드	설명	연관 세부지표	지표	기관
베르겐	건축 금지선	도시를 둘러싼 7개 산과 피요르드 라인 개발 엄격 제한	도시 녹지	GPCI	Mori
	10분 자연	모든 시민이 도보 10분 내에 자연 녹지에 접근 가능	도시 녹지	GPCI	Mori
로테르담	워터 광장	평소엔 놀이터/광장, 폭우 시엔 빗물 저장소로 변하는 가변형 시설	자연재해의 경제적 위험	GPCI	Mori
	옥상 공원	기후 적응(홍수 방지)을 도시 어메니티(놀이)로 승화	스포츠 및 레저 활동	QLI	Mercer
휴스턴	스펀지 도시	도시를 관통하는 수로(Bayou) 주변을 습지 공원으로 조성	기후 행동에 대한 약속	GPCI	Mori
	선형 공원	홍수 조절 기능과 시민 산책로(Greenways) 기능 결합	도시 녹지	GPCI	Mori
밀란	수직 숲	건물 자체를 나무로 덮는 '보스코 버티칼레' 도입	공기질	GPCI	Mori
	나무 300만 그루	2030년까지 300만 그루 식재로 도시 온도 2도 저감 목표	연평균 기온	GPCI	Mori
퍼스	캐노피 30%	모든 도로와 보행로의 30%를 나무 그늘(Canopy)로 덮도록 의무화	도시 녹지	GPCI	Mori
	도시 쿨링	폭염 대응 및 보행자 건강 보호 전략	기후: 여행자에게 불편함	GLI	EIU
버밍엄	녹색 복지	내부 순환도로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지 축 조성	도시 녹지	GPCI	Mori
	도로 다이어트	사회적 약자 거주지에 우선적으로 숲을 조성하여 정신건강 증진	정신 건강에 대한 위험	GPCI	Mori

3) 교통혁신 분야

■ 룩셈부르크(Luxembourg)

- 세계 최초로 기차, 트램, 버스 등 전국 단위의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절감함
-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통근자들을 위해 광역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접 국가와의 연결성을 극대화함

■ 파리(Paris)

-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직장, 의료, 상점 등 필수 생활 기능을 완비하는 '15분 도시' 모델을 추진함
- 노상 주차장 7만 면을 제거하고 이를 자전거 도로와 녹지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자전거 혁명'을 통해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변화함

■ 브뤼셀(Brussels)

- 도심(펜타곤 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통과 차량을 전면 차단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확보함
- 기존 차로를 광장과 보행로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심 공간을 되돌려주고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LA(Los Angeles)

- 지하철과 버스 노선 주변의 고밀도 주택 개발(TOC)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을 폐지하거나 상한제를 도입하여 자가용 이용 유인을 줄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를 지향함

■ 캔버라(Canberra)

- 신규 인구의 70%를 기존 도심 내 재개발(Infill)을 통해 수용하는 '내부 충전' 전략을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을 방지함
-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압축 도시(Compact City) 형태의 자족 지구를 조성하여 통근 시간을 단축함

〈표 16〉 교통혁신 관련 벤치마킹 후보도시

도시	키워드	설명	연관 세부지표	지표	기관
룩셈부르크	무료 대중교통	세계 최초 기차, 트램, 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대중교통 이용	GPCI	Mori
	국경 연결	국경을 넘는 통근자를 위한 광역 환승 시스템 구축	운송: 지역 또는 국제 링크의 품질	GLI	EIU
파리	15분 도시	도보/자전거 15분 내 생활 필수 기능(직장, 의료, 상점) 완비	소비재 및 서비스의 가용성	GLI	EIU
	자전거 혁명	노상 주차장 7만 면 제거 후 자전거 도로 및 녹지로 전환	택시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쉬움	GPCI	Mori
브뤼셀	펜타곤 보행화	도심(펜타곤) 내부로 진입하는 통과 차량 전면 차단	교통혼잡비용	GPCI	Mori
	통과교통 차단	차로를 광장과 보행로로 전환하여 시민 공간 회복	도시 청결에 대한 만족도	GPCI	Mori
LA	대중교통 커뮤니티	지하철/버스 노선 주변 고밀도 주택 개발(TOC) 인센티브	교통: 대중교통의 품질	GLI	EIU
	주차장 상한제	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 폐지 또는 상한제 도입	대중교통 이용	GPCI	Mori
캔버라	70% 내부 충전	신규 인구의 70%를 기존 도심 내 재개발(Infill)로 수용	인프라	GCO	Kearney
	자족 지구	외곽 확산을 막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압축 도시	통근 시간	GPCI	Mori

4) 경제·재생 분야

■ 함부르크(Hamburg)

- 노후화된 과거 항만 부지 약 157ha를 주거, 문화,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수변 도시로 재생하는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도시 전체의 녹지를 그물망처럼 연결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의 활력을 높임

■ 나고야(Nagoya)

- 리니어 신칸센 개통에 대비하여 나고야역 주변을 고밀도 복합 공간으로 개발하는 '역세권 대개조'를 진행하면서 나고야성 등 주요 역사 지구의 고도 제한 및 경관축 보호 정책을 통해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며 재생을 도모함

■ 산호세(San Jose)

- 단순 주거 기능에 치중되어 베드타운화된 교외 지역을 일자리와 주거가 복합된 '어반 빌리지' 지구로 개조함
- 이를 통해 통근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여 자족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함

■ 브리즈번(Brisbane)

- 올림픽 대비 및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강을 건너는 보행·자전거 전용 다리인 '그린 브릿지' 5개를 신설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함
- 아열대 기후 특성에 맞춰 자연 환기가 가능한 친환경 건축 디자인을 의무화하는 '숨 쉬는 건물'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미관을 조성함

〈표 17〉 경제·재생 관련 벤치마킹 후보도시

도시	키워드	설명	연관 세부지표	지표	기관
함부르크	하펜시티 (수변)	노후 항만 157ha를 주거·문화·상업 복합 수변 도시로 재생	관광 명소	GPCI	Mori
	녹색 그물망	도시 전체 녹지를 그물망처럼 연결하여 보행권 확보	택시·자전거로 이동하기 쉬움	GPCI	Mori
나고야	역사 경관 보존	리니어 신칸센 개통 대비 나고야역 주변 고밀도 복합 개발	인프라	GCO	Kearney
	역세권 대개조	나고야 성 등 역사 지구의 고도 제한 및 경관축 보호	인프라	GCO	Kearney

도시	키워드	설명	연관 세부지표	지표	기관
산호세	어반 빌리지	베드타운화 된 교외 지역을 '일자리+주거' 복합 지구로 개조	총 고용	GPCI	Mori
	직주 균형	통근 거리를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유도	다양한 레스토랑	QLI	Mercer
브리즈번	그린 브릿지	강을 건너는 보행/자전거 전용 다리 5개 신설 (올림픽 대비)	교통: 도로망의 품질	GLI	EIU
	숨 쉬는 건물	아열대 기후에 맞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건물 디자인 의무화	환경 성능	GCO	Kearney

라. 벤치마킹 후보 도시 최종선정

1) 선정 배경 및 근거

■ 선정 기준 및 방법론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시민 삶의 질 실태 진단 결과, 국제기관의 도시경쟁력 평가 보고서, 국내외 학술연구, 언론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벤치마킹 후보 도시를 도출하고, 아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3개 도시를 선정함
 - ① 도시 구조적 유사성 : 항만·제조업 기반의 산업도시에서 생활·서비스 중심 도시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을 완료한 도시로서, 인천이 직면한 원도심 쇠퇴, 수변공간 미활용, 교통 혼잡 등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극복한 경험 보유 여부
 - ② 삶의 질 지표 우수성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살기 좋은 도시 지수, 머서(Mercer) 삶의 질 조사, IMD 스마트시티 지수 등 국제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해당 정책 분야의 성과가 검증된 도시
 - ③ 인천 시민 수요와의 정합성 : 인천광역시가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인천광역시 사회조사』(2023·2024년) 및 인천연구원의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시민 수요 반영

2) 최종 선정 도시

- 위 기준을 적용한 결과, 토론토(주거 안정·공동체), 함부르크(경제 재생·수변개발), 파리(교통 혁신·생활권 재편) 를 최종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함

3) 도시별 선정 근거

■ 토론토(캐나다) — 주거 안정 및 공동체 회복 모델

- 인천은 송도·청라·검단 등 신도시 개발로 초고층 아파트 공급이 급증한 반면, 단지 내 공동체 기능 부재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가족 주거 수요 미스매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2024년 인천사회지표조사』(인천광역시, 2024) 결과,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49.5%로 전년(44.4%) 대비 5.1%p 증가했으나, 여전히 시민 절반 이상이 지역 공동체에 귀속감을 갖지 못하는 상황
 - 또한 거주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노인복지(19.8%), 여성복지(17.5%), 저소득층 복지(17.2%)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된 반면 공동체 소속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는 인천의 주거 환경이 단순한 물리적 공급을 넘어 돌봄·여가·교육 기능이 통합된 공동체 회복 기반을 갖춰야 함을 시사하며, 고밀 주거 환경에서 수직 커뮤니티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토론토 벤치마킹의 필요성과 직결됨

- 토론토는 역세권 고밀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수직 커뮤니티(공공시설 의무 설치)를 요구하고, 가족친화 지침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심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인천광역시의 주거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모델로 적절함
- 토론토는 이와 유사한 고밀 주거 환경 속에서 공동체 통합 정책과 가족 친화 주거 공급 의무화를 통해 '살고 싶은 도시'로 전환한 대표 사례로, EIU 살기 좋은 도시 지수 및 머서 삶의 질 평가에서 북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토론토시의 관련 정책은 OECD 도시정책 보고서(2023), UN-Habitat 사례집 등에서 고밀 주거도시의 공동체 재건 모범 사례로 다수 인용되고 있어 정책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함부르크 (독일) — 항만·산업 쇠퇴지 재생 및 수변 혁신 모델

- 인천 내항 일대는 오랜 항만·물류 기능으로 인해 도심과 단절된 낙후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수변 접근성 부족과 녹지 단절이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실제로 『2024년 인천사회지표조사』(인천광역시, 2024) 결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로 '공원·둘레길·자전거도로'가 전체 응답의 24%를 차지하여 문화체육시설(34%)에 이어 2위를 기록함으로써, 수변·녹지 접근성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함
 - 또한 인천연구원은 인천 전체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80%에 육박한다고 분석하며, 원도심 도시재생을 시정의 최상위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음 (인천연구원,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추진방향』)
- 함부르크는 항만 도시라는 동일한 도시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하펜시티(HafenCity)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최대 규모의 수변 도심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도시로, 인천 내항 재생의 직접적 참조 모델로 적합함
 - 독일 도시계획학회, EU 도시재생 백서 등 다수 문헌에서 하펜시티는 항만 유희지 재생의 국제 표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천시가 추진 중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과 공간적·기능적 유사성이 높음

■ 파리 (프랑스) — 생활권 재편 및 교통 혁신 모델

- 파리는 국가 수도로서 일반적인 벤치마킹 비교 도시 선정 기준인 '유사 규모·위상의 도시' 조건과 일부 상이하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파리의 '15분 도시(Ville du Quart d'Heure)' 정책은 수도 특유의 광역 행정 역량에 의존하는 정책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의 근린 서비스 재배치라는 기초 도시계획 전략으로서 중소·광역도시에도 이전 적용이 가능
 - 실제로 뮌헨, 포틀랜드, 바르셀로나 등 수도가 아닌 다수 도시가 파리 모델을 응용하여 자국형 15분 도시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
 -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구감소시대 도시활력, 생활도시 인천구상』(조상운 등) 보고서에서 철도역 중심 보행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생활권을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생활인구 지표를 활용한 일상생활권 유형화 분석을 통해 인천시가 정주인구 중심의 공간정책에서 벗어나 'N분 도시' 개념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하였음
 - 또한 같은 해 발표된 『일본 입지적정화 제도의 동향과 인천시 시사점』(이종현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도 인천 원도심 활성화 수단으로 'N분 도시' 개념 도입을 별도로 제안하였음
- 둘째, 인천은 수도권 내 도시로서 서울 대도시권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어 원도심의 자족적 생활권 형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함
 - 인천 원도심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서울 중심의 광역 교통망으로 인해 고차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서울에 의존하는 '빨대 효과'로 인한 주거 기능 편중과 베드타운화는 지역 내 자립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을 구조적으로 저해
 - 특히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신도심 개발과 대비되는 원도심의 인구 유출 및 노후화는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일상적 필수 기능이 지역 내에서 완결되는 '자족적 근린 생활권'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
 - 파리 15분 도시 모델은 이처럼 광역 중심도시에 기능이 집중된 환경에서 분산된 근린 생활권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개발된 것으로, 인천 원도심의 자족성 회복이라는 과제와 정책적 맥락이 일치
- 셋째, 파리의 자전거 인프라 확충 정책은 이달고 시장 재임 이후 뚜렷한 정량적 성과(자전거 도로 연장 3배 이상 확대, 자동차 통행량 감소 등)가 언론 및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있어, 인천의 그린 모빌리티 정책 수립에 실증적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빈페이지)

제3절 도시별 도시정책 및 지표관리 특징

가. 토론토 도시정책 및 지표관리 특징

■ 도시정책 특징

- 토론토는 역세권 중심 성장관리로 도시의 밀도·형평·탄소를 동시에 설계하여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조건부 성장을 통해 도시 품질 제고 및 공동체 회복 도모
-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기초) 교통 접근성 기반의 역세권 성장관리, 가족 친화 조례를 통한 포용적 주택공급 의무화, 1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한 공급·지원 체계 구축, 수직 커뮤니티를 연계한 도심 고도화 및 공공공간 확충, 그리고 2040 넷제로 목표의 제도적 구체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도시성장 전략 수립

〈표 18〉 토론토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기초 특징

구분	내용
역세권 중심 성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환승 거점 주변의 성장을 집중시키고, 용도·밀도·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정비하는 방식 • 개발 허용의 기준을 토지가 아니라 교통 접근성에 둠
포용적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등 특정 구역에서 신규 개발 시 일정 비율의 '장기' 부담 가능 주택을 의무화해 혼합소득 커뮤니티를 유도 • 신규 개발 시 장기 공공성 주택을 의무 포함
10년 주거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스펙트럼 전반을 포괄하는 실행계획으로 공급·지원·파트너십을 묶음 관리
도심 고도화·공공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결형 커뮤니티·연결성·경제공간 관점에서 고밀화에 필요한 공원·공공공간·기반시설 전략을 함께 제시
도시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 넷제로 목표를 제도·투자·실행계획으로 구체화

- (정책 연계) 교통·주거·공공성의 제도적 통합을 전제로 한 역세권 고밀 개발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적 도시 계획 의제화
 - 역세권 고밀 개발
 - 단순 개발 촉진이 아니라 교통·주거·돌봄을 제도적으로 동시 달성

- 넷-제로 도시계획 의제(주거·건물·교통)화
 - 목표(2040)-전략-Action Plan까지 단계화

- (도시개발) 토론토시 120개 대중교통 역세권(MTSA·PMTSA)을 대상으로, 반경 500~800m 내 주거·상업 고밀도 개발 기준 수립과 가족친화 주거 공급 수직적·공공 공간 확보를 연계한 통합적 추진

〈표 19〉 토론토 도시개발 특징

구분	내용
토론토 역세권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토시는 25개의 주요 교통역세권(MTSA)과 95개의 특별관리 역세권(PMTSA)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밀도를 높이되 시민 참여형 공동체 회복 방안 필수적으로 포함
토론토 120개 대중교통 역세권(MTSA) 고밀도 개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토 시내 주요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주거 및 상업 밀도를 대폭 상향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도시 성장을 도모 • 대상: 120개 주요 교통역 주변(MTSA 25개, 특별관리구역 PMTSA 95개) • 범위: 각 역에서 반경 500~800m 이내 (도보 약 10분 거리)
구역별 고밀도 개발 기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주거지가 아닌, 인구·일자리·돌봄이 공존하는 고밀도 거점을 목표 • 밀도 기준: 지하철역 주변 1ha당 최소 200명(거주자+직원) 수용 의무화 • 층수 및 용적률 차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200m 이내: 용적률 8.0 이상, 최대 30층 허용 - 200~500m 구간: 용적률 6.0 이상, 최대 20층 허용 - 주거 지역: 아파트 6층, 다세대·다가구 4층까지 허용 범위 확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주택 정책: 특별관리구역(PMTSA) 내 의무적인 저렴한 주택공급 추진 • 입체적 인센티브: 공원 조성, 보행로 정비, 공공 예술 설치 시 추가 높이 인센티브 부여

■ 지표 관리 특징

- 토론토는 오픈 데이터 포털을 통해 정책 방향 및 도시계획에 따른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며 중앙 집중화 관리 정책으로 데이터의 투명성을 보장함

- 토론토 시 오픈 데이터 관련 정책 주요 내용

- 토론토는 도시전략이나 시민 요청, 중요 이슈에 따른 데이터들을 정리하여 오픈 데이터 포털에 업로드
-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자체 평가(최신 데이터 여부, 결측 정도 등)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별로 공개
- 시민, 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적극 공개
- 중앙 집중화 데이터 관리로 모든 데이터의 투명성 보장

〈표 20〉 ‘삶의 질’ 키워드 관련 지표 관리현황: 토론도

구분	내용	
키워드	수직 커뮤니티	
데이터명	Community Planning Boundaries	
주요 내용	관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전체 계획 (과거 - 현재) • 지역 단위 계획 (과거 - 현재) • 관련 위치정보
	제공 정보	1. 모든 형태의 관련 데이터 파일 2. 데이터 품질 평가 2-1. Freshness(데이터 최신성) 2-2. Metadata(데이터의 정보 묘사 정도) 2-3. Accessibility(데이터 형태의 다양성) 2-4. Completeness(결측 정도) 2-5. Usability(데이터 활용성)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도시계획, 위치정보, 데이터 품질 등 정보를 동시에 제공 • 정책 방향 및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함 • 단순 데이터 제공만이 아니라 연계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평가 기관 및 개인·기업의 접근성 강화 	

나. 함부르크 도시정책 및 지표관리 특징

■ 도시정책 특징

- 함부르크는 항만·산업도시의 한계를 도시 재편과 탈탄소전략으로 극복하고, 산업·물류·도시공간을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어 재생형 도시의 세계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매김
-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기초) 하펜시티 등 대형 워터프런트 재개발을 포함한 포트폴리오형 도시개발 추진, 지속가능 교통수단 80% 전환 목표, 산업전략과 도시 공간계획의 통합 설계, 그리고 2040 기후중립·항만 탈탄소화를 아우르는 함부르크의 장기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표 21〉 함부르크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특징

구분	내용
대형 워터프런트 재개발(하펜시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인접부를 주거·업무·문화·공공공간이 결합된 혼합용도 도심 확장으로 재편(유럽 대표급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개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2020~2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을 ‘한 번에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개발 사업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나눠서 추진하며 기존 도시는 재생하고, 새로운 개발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개발

구분	내용
모빌리티 전환(걷기·자전거·대중교통 80%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중심에서 지속가능 교통수단 중심으로 부담률을 끌어올리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
경제·산업전략('Hamburg 2040' 등)과 도시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전략을 먼저 정하고, 산업이 지속되도록 도시간 주거·교통·공공시설 설계
기후중립·산업 탈탄소(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물류 탈탄소화 추진 2030년까지 80%를 도보·자전거·대중교통 등 지속가능 수단으로 추진

- (정책 연계) 하펜시티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항만·물류 기능과 주거·문화·관광·업무 공간의 통합적 재편, 그리고 시민 체감 지표 중심의 모빌리티 목표 관리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 '항만경제 + 도시공간'의 통합 재편
 - 물류·산업도시가 워터프런트 재생을 통해 도심 경쟁력(주거·문화·관광·업무)을 동시에 획득(하펜시티모델)
 - 모빌리티목표 관리
 - 도시교통정책을 시민 체감 지표로 관리(교통수단 부담률)

- (도시개발) 약 18조 원 규모의 유럽 최대 도심 재개발 사업인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지속가능 교통·에너지 인프라 구축, 문화 앵커 시설 도입, 대학·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혁신 네트워크 형성, 대규모 수변 공원 조성을 통합한 복합도시 재생 모델 구현

〈표 22〉 함부르크 도시개발 특징

구분	내용
함부르크 하펜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펜시티(HafenCity)는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이자, 수변공간을 어떻게 도시의 핵심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체로 지속 가능한 재생 모델 제시 '하펜시티프로젝트'는 넓은 항구를 첨단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약 18조원을 투입,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세계문화유산 '슈파이허슈타트' 내 해양박물관, 미니어처 원더랜드, 커피 박물관 등이 들어설 예정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자전거 운용,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수소 버스 도입 구리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한 발전소 및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구분	내용
혁신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수 대비를 위한 '높은 언덕(Warfts)' 시스템 구축 도로 및 교량 신축, 지하철 개통 등 시민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넓은 토지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로 다국적 기업 유치 성공
문화콘텐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조 원 규모의 엘베필하모닉 콘서트홀 개관 국제해양박물관, 프로토타입 자동차박물관 등 다양한 전시 시설 개관 컨벤션 및 이벤트 센터 개설 등 다양한 문화 앵커 도입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펜시티 대학(HCU HafenCity University) 신규 설립을 비롯한 대학 및 연구시설 도입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스포츠 시설 건립 함부르크시의 적극적인 시민위원회 활동 지원
공원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만ha 면적의 대규모 공원시설 조성 플로팅 광장, 디자인공원 등 다양한 테마의 공원 조성 'Historical Walk'를 개발하여 10.5km의 수변 산책로 시민들에게 개방

■ 지표 관리 특징

○ 함부르크는 Urban Data Platform이라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함부르크 시 오픈 데이터 관련 정책 주요 내용

- 중앙 집중형 거버넌스 모델로의 데이터 포털 생성
- 통합성: 각 부서별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통합 관리
- 개방성: 공공데이터 및 민간·IoT 데이터 결합 공개
- 실행력: 분석 데이터를 실제 정책에 즉각 반영
- 데이터 응용 및 시민 참여: DIPAS (디지털 참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정책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남겨 정책에 참여

〈표 23〉 '삶의 질' 키워드 관련 지표 관리현황: 함부르크

구분	내용
키워드	하펜시티
데이터명	Dipas Navigator
주요 내용	

구분	내용
	Dipas Navigator를 통해 주제별 통계 자료, 실시간 현황, 대시보드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정책 참여 가능 실제 시민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남겨 반영된 사례가 있으며 관련된 과정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기록물로 남겨둠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포털의 기능을 넘어서 데이터를 응용하고, 실제 정책에 참여 가능 • 각 정책에 활용되었던 기록물 또한 데이터베이스화

다. 파리 도시정책 및 지표관리 특징

■ 도시정책 특징

- 파리는 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자체를 기후와 삶의 질 기준으로 바꾸고, 교통·생활권·기후 기준으로 도시의 작동 방식을 재설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 선도
-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기초) 기후 적응을 도시계획 상위 규범으로 내재화한 바이오클리마형 계획 체계, 15분 생활권 완결 및 자전거 네트워크 확충, 200km 신규 광역메트로 구축과 저배출구역 지정을 통한 대기질 관리를 통합한 파리의 생태·모빌리티 중심 도시계획 대전환 추진

〈표 24〉 파리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특징

구분	내용
바이오클리마형 도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홍수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녹지·생물 다양성 강화 등 생태기반 계획을 도시계획의 '상위 규범'으로 반영
15분 도시(근린 생활권 완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필수 기능을 가까이에서 해결하도록 공공공간·이동체계·시설배치 재조정(파리 정책 브랜드로 확산)
자전거 도시 (Plan Vél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자전거 도시'를 목표로 네트워크 확충·임시(코로나) 자전거 도로의 상설화 등 추진
광역교통 대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km 신규 자동 메트로 68개 역 등 광역권 접근성 재편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구분	내용
저배출구역(ZFE)으로 대기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개발사업 관리가 아니라, 도시계획 제도 자체를 기후 적응 기준으로 재설계함으로써 도시 전반의 개발 허용 기준을 전환

- (정책 연계) 도시계획 제도 자체를 기후 적응 규범으로 전환하고, 15분 생활권과 자전거 정책을 연계하여 이동체계와 근린 접근성을 통합 설계한 파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
 - 도시계획 자체를 '기후적응 규범'으로 재설계
 - 개별 개발사업 관리가 아니라, 도시계획 제도 자체를 기후 적응 기준으로 재설계함으로써 도시 전반의 개발 허용 기준을 전환
 - 15분 도시 + 자전거 정책
 - 이동(교통) 정책이 곧 생활권 정책이 되도록 설계(근린 접근성 강화)
- (도시개발) 단절된 철도 창고 부지를 생활권으로 통합 재편한 클리시-바티놀 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보행·자전거 중심 이동체계와 마틴루터킹 공원을 통해 거주·업무·생활서비스·건강·학습·여가 6대 기능을 도보 15분 내 구현한 파리 15분 도시 콘셉트의 실증적 적용

〈표 25〉 파리 도시개발 특징

구분	내용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디든 15분 거리 안에서 삶의 모든 필수 기능을 향유하는 '생활 밀착형 도시' 파리 지향
클리시-바티놀 지구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철도, 기차 관련 창고들이 위치해 있던 곳을 단절되었던 바티놀과 포르트 드 클리시 지역과 연결하고, 하나의 생활권화 차도보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발달
마틴루터킹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보 혹은 자전거로 15분 거리 안에 거주, 업무, 생활서비스공급, 건강, 학습, 여가 등 6가지 요소를 만족할 수 있게 도시 구성 파리 '15분 도시' 콘셉트 적용 대표 사례

■ 지표 관리 특징

- 파리는 타 벤치마킹 도시와는 차별적으로 도시경쟁력 및 정주 여건 등을 정밀 분석·모델링하는 기구가 있으며, 도시경쟁력 지표에 해당하는 데이터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여 관리함

- 파리 도시설계원

- 파리와 광역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비영리 기구
- 지표 관리 방식: 도시 내 블록, 건물과 같은 최소한의 단위로 데이터 수집 및 모델링
- 'Paris Region Facts and Figures'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여 자체적인 도시경쟁력 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 인구, 경제, 주거, 환경 등 1,000여개 지표 관리
- 데이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내 모든 블록 전수조사

〈표 26〉 도시 자체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 보고서 작성 - 파리

구분	내용
보고서명	Paris Region Facts and Figure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내 데이터 분야: 국제적 위상,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최첨단 인프라 등 각 분야에 따라 파리의 도시경쟁력 데이터 소개 • 보고서와 연계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타 국가 및 도시의 정책 사례를 소개·비교 가능 • 매년 글로벌 표준에 맞춘 데이터를 발표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투명하게 관리함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쟁력 지표별로 직접 연계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여 해외 평가기관에서의 데이터 접근을 용이하게 함 • 과업의 중장기 목표인 도시경쟁력 지표 전담 조직 신설과 연계

라. 벤치마킹 도시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분석 시사점

1) 역세권 중심 고밀·통합 성장관리

- GTX 등 주요 환승거점 주변 활용 교통 중심 성장 구조 확립
- 신규 개발 시 장기 부담 가능 주택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여 사회적 혼합 및 포용성 강화
- 토지이용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교통 접근성·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한 조건부 개발체계로 전환

2) 수변 재생 및 혁신 거점 구축

- 내항 등 유휴 항만부지를 주거·업무·문화가 결합된 복합 워터프론트로 재편
- 대학·연구기관·문화 앵커시설 유치로 통해 혁신 네트워크와 도시 활력 제고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 보행·자전거 중심의 지속가능 교통체계 확대를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인프라 확충

3) 기후 적응 및 생활권 중심 도시구조 개편

- 15분 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근린 단위 접근성 강화
- 기후 적응과 생물다양성을 도시계획 최상위 기준으로 설정하여 개발 기준 재설계
- 철도 부지 등 단절 공간을 통합하여 보행 중심 생태 공간으로 전환

4) 데이터 기반 도시관리 및 거버넌스 강화

- 도시경쟁력 지표를 상시 분석·공개하는 전담 조직 신설 검토
- 시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 강화
- 오픈데이터 품질 관리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책 기반 마련

〈표 27〉 토론토, 함부르크, 파리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 시사점

구분		적용 방안
도시공간	역세권 고밀 복합화	GTX 및 인천지하철 역세권을 단순 주거지가 아닌 일자리·주거 복합 거점으로 육성
수변 재생	하펜시티 모델	인천 내항 및 수변 공간을 문화·관광·연구 시설이 집적된 혁신 거점으로 전환
시민 생활	15분 생활권	원도심 등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근린 생활 시설의 도보 접근성 대폭 개선
거버넌스	디지털 참여 확대	시민이 정책 데이터를 보고 직접 의견을 내는 디지털 소통 활성화
지표 관리	전담 기구 활용	인천형 도시경쟁력 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매년 분석·발표할 전담 조직 고려

제4절 벤치마킹 대상 선진도시와 도시경쟁력 비교

가. 인천시 타 도시 비교 도시경쟁력 진단 개요

○ ‘인천광역시 도시경쟁력 종합 지표’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의 도시경쟁력을 진단함

- 심층 벤치마킹 대상인 토론토, 함부르크, 파리에서 수집가능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와 지표별 비교 진단을 수행하였음
- 각 도시별 데이터를 수집한 후 z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여 도시 간 순위를 비교함
 - z 표준화 점수는 서로 다른 정량적 값을 평균 0, 표준 편차 1인 값으로 변환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표준화 과정을 통해 데이터별 수치 차이를 왜곡 없이 균일하게 나타냄
- 도시별로 정량적으로 직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오픈 데이터 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데이터나 실제 해외 도시경쟁력 지표에서 인용하는 글로벌 도시/국가 지수 중심으로 비교

〈표 28〉 도시경쟁력 비교 진단 활용 세부지표

분야	세부지표	단위	출처	기준연도	인천	토론토	함부르크	파리
1.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국가 GDP	억 달러	한국은행	2024	18,746	22,836	50,136	33,616
	국가인구 수	백만 명	KOSIS	2024	51.8	40.5	83.6	66.7
	1인당 GDP	달러	KOSIS	2024	36,018.6	56,430.1	59,939.2	50,435.4
	인구 수	만 명	KOSIS	2025	305.2	302.6	181.5	1,134.7
	GDP 성장률	%	KOSIS, OECD	2024	2.0	2.0	-0.5	1.2
	고용률	%	각 도시별 통계	2024	63.5	74	77.7	61.8
	실업률	%	각 도시별 통계	2024	3.2	8.2	8.2	5.7
	(국가단위) 법인세율	%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25	64.1	69.3	70.2	45.3
	(국가단위) 근로자의 총 근무 시간	(연간) 시간	OECD	2023	1,872	1,694	1,335	1,489
	(국가단위) 경제적 자유 지수	-	Economic Freedom	2023	7.53	7.92	7.84	7.39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분야	세부지표	단위	출처	기준연도	인천	토론토	함부르크	파리
2. 인적 자원 및 교육	(국가단위) 고졸 이상 인구 비율	%	OECD	2024	56.20%	64.7	34.3	43.4
	대학 수	개	각 도시별 통계	2025	7	6	17	18
	숙련된 인력의 가용성	점수	세계 인재 경쟁력 지수	2025	58.08	66.4	65.7	62.9
3. 혁신 및 스타트업 생태계	(국가단위)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	%	OECD	2024	5.21	1.7	3.13	2.23
4. 사회적 안정성 및 포용성	(국가단위) 사회적 자유 지수	점수	Freedom House	2025	81	97	95	89
	(국가단위) 언론 검열 지수	점수	RSF	2025	61	21	11	25
	(국가단위) 민주주의 지수	점수	Democracy index	2024	7.75	8.69	8.73	7.99
	(국가단위) 세계 평화지수	점수	Global Peace Index	2025	1.736	1.491	1.533	1.967
	(국가단위) 현대판 노예 지수	점수	Global Slavery Index	2022	3.5	1.8	0.6	2.1
5. 보건 및 공중 위생	기대 수명	세	OECD	2025	83.5	81.7	81.1	83.0
	의사 수	천 명	각 도시별 통계	2025	8.5	15	20	19
	병원 개수	천 개	각 도시별 통계	2025	35	10	14	22
6. 문화, 여가 및 관광	박물관	개	각 도시별 통계	2025	60	50	60	150
	영화관 수	개	각 도시별 통계	2025	29	30	28	88
	문화콘텐츠 수출액	억 달러	International Trade Centre	2024	12.1	21.6	53.4	35.5
7. 환경 및 지속가능성	공기질 (PM 2.5)	μg/m³	Numbeo	2025	19	9	14	16
	도시 녹지	점수	Numbeo	2025	50	72.41	85.77	58.44
	수질	점수	Numbeo	2025	71.43	62.33	76.95	58.13
	자연재해의 경제적 위험	십억 달러	World Risk Report	2025	10.59	15.76	13.41	54.94

분야	세부지표	단위	출처	기준연도	인천	토론토	함부르크	파리
8. 도시 인프라	지하철역 수	개	각 도시 통계	2025	60	87	93	308
	교통 혼잡도	점수	Numbeo	2025	156.2	199.9	115	150.4
9. 국제 연결성 및 이동성	통근 시간	분	Numbeo	2025	42.2	44.6	32.9	41.1
	항공 승객 수	백만 명	각 도시 공항 통계	2025	71.2	50.5	14.8	70.3
	국제선 직항하는 도시 수	개	각 도시 공항 통계	2025	178	180	130	300
10. IT 및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 지수	순위	UN 전자정부 평가 국가 순위	2024	4	47	12	34

* '실업률', '근로자의 총 근무 시간' 지표는 낮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로 취급하기 위해 역점수 처리하였음

** 표의 가독성을 위해 일부 지표는 일부 단위로 환산하여 표기

나. 인천시 타 도시 비교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1) 인천시 도시경쟁력 주요 특징 및 현황

- 인천은 하드웨어적 성장 동력과 치안 인프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적 가치와 인적 자본의 질적 성숙도는 보완이 필요한 '불균형적 성장 구조'를 보이고 있음
 - 혁신 및 경제 성장 엔진 가동: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이 1.6으로 비교 도시 중 가장 높으며, GDP 성장률(1.2)과 실업률(-1.5) 지표에서 압도적인 활력을 보여줌
 - 글로벌 허브 인프라 확보: 항공 승객 수(0.9)와 병원 개수(1.5), 그리고 공기질(1.6) 등 도시의 기초 인프라와 생존 환경 지표는 매우 우수
 - 사회적 안정성 유지: 세계평화지수(0.3) 및 보건·공중위생(0.1) 분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

2) 선진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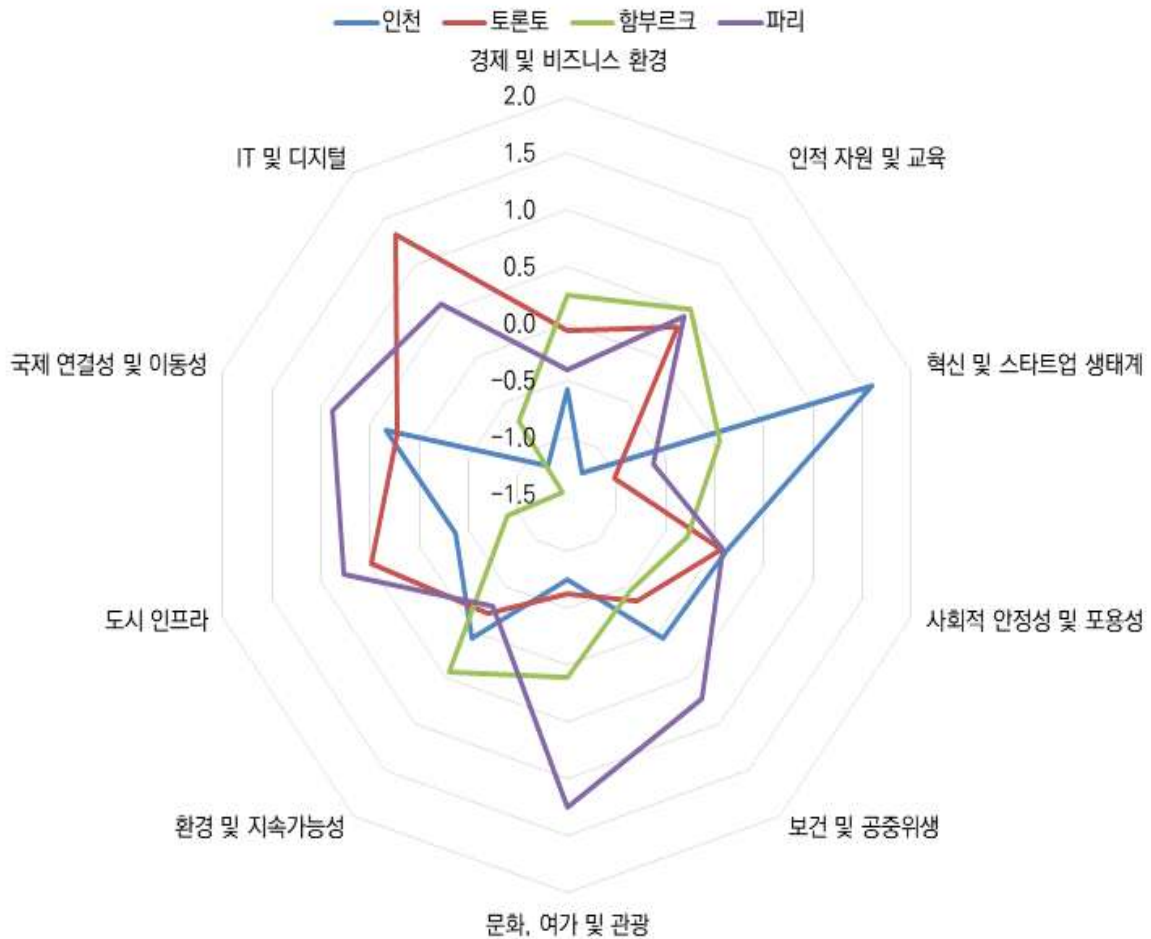
- 종합 점수표 분석 결과, 인천은 지식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인 '인재', '디지털', '사회적 자유' 분야에서 선진 도시 대비 뚜렷한 열세를 보임
 - 인적 자본 및 교육 역량의 한계: 인적 자원 및 교육 분야 점수가 -1.3으로 가장 취약하며, 특히 숙련된 인력 가용성(-1.6) 부족한 혁신 성과를 산업화하는 데 병목 현상을 야기
 -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지연: IT 및 디지털 지수가 -1.2로 최하위권이며, 온라인 서비스 지수(-1.2)는 시민 체감 행정의 디지털화가 시급함을 시사
 - 사회적 성숙도 및 문화 다양성 부족: 사회적 자유(-1.5)와 민주주의 지수(-1.3), 문화콘텐츠 수출(-1.2) 지표는 경제적 성장에 걸맞은 사회·문화적 매력도 증진이 필요함을 나타냄

3) 순위별 상세

- 인천시는 10개 분야 중 '혁신 및 스타트업 생태계' 분야와 '사회적 안정성 및 포용성'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타 도시 대비 낮은 순위임
 -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도시는 표준화 점수 0.2점의 함부르크이며, 인천광역시 -0.6점으로 4위
 - '인적 자원 및 교육' 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도시는 표준화 점수 0.5점의 함부르크이며, 인천광역시 -1.3점으로 4위

- '보건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도시는 표준화 점수 0.7점의 파리이며, 인천광역시는 0.1점으로 2위
- '문화, 여가 및 관광' 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도시는 표준화 점수 1.3점의 파리이며, 인천광역시는 -0.8점으로 4위
- '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도시는 표준화 점수 0.4점의 함부르크이며, 인천광역시는 0.1점으로 2위
-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도시는 표준화 점수 1.7점의 파리이며, 인천광역시는 -0.8점으로 4위
- '국제 연결성 및 이동성' 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도시는 표준화 점수 0.9점의 파리이며, 인천광역시는 0.3점으로 2위
- 'IT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도시는 표준화 점수 1.3점의 토론토이며, 인천광역시는 -1.2점으로 4위

〈그림 1〉 인천시 진단 결과 종합



다.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전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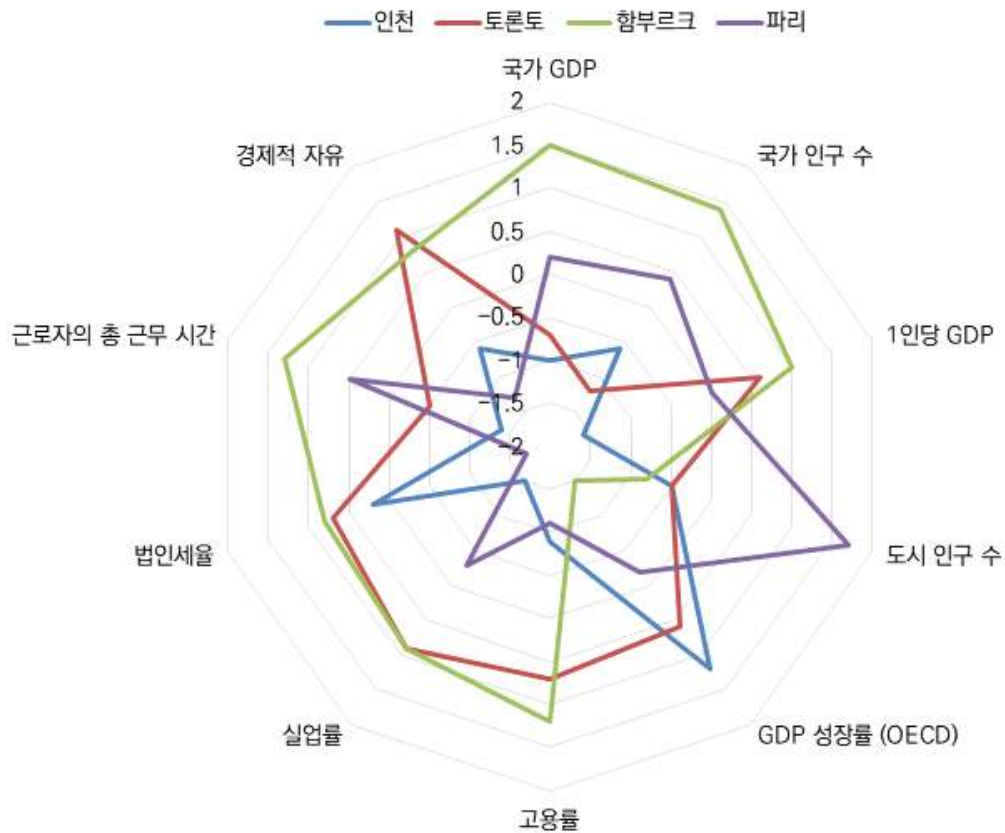
1) 인천시 경제 환경의 주요 특징 및 현황

- 인천은 다른 선진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 잠재력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임
 - 높은 경제 성장률: 인천의 GDP 성장률(OECD 기준)은 1.2로, 비교 대상인 토론토(0.6), 함부르크(-1.5), 파리(-0.2)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 활력이 상대적으로 우수
 - 고용 시장의 안정성: 실업률 지표가 -1.5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이는 비교 도시들(토론토 0.9, 함부르크 0.9, 파리 -0.3)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
 - 근로 여건: 근로자의 총 근무 시간 지표는 -1.4로 토론토(-0.5), 함부르크(1.3), 파리(0.5) 보다 현저히 낮아, 근로 시간 관리 측면에서 차별화된 수치를 보임

2) 선진 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 생산성 및 소득 수준: 1인당 GDP 지표가 -1.6으로 토론토(0.6)나 함부르크(1.0)에 비해 크게 낮아, 도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시민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시급
 - 비즈니스 자유도: 경제적 자유 지표가 -0.6으로 토론토(1.1)나 함부르크(0.8)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 고용률: 고용 시장의 안정성(실업률)은 높으나 고용률 지표 자체는 -0.9로 함부르크(1.2)나 토론토(0.7)에 뒤처져 있어, 실질적인 경제 활동 인구를 확대하는 정책 필요

〈그림 2〉 (전체) 인천시 진단 결과



3) 전략적 시사점

■ 비즈니스 친화적 생태계 조성

- 토론토는 비교 도시 중 비즈니스 활성화와 관련된 지표에서 압도적인 우위
 - 경제적 자유도 극대화: 토론토의 경제적 자유 지표는 1.1로 인천(-0.6)과 큰 격차를 보임
 - 인천은 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과감하게 적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함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토론토는 1인당 GDP 지표가 0.6으로 양호한 편
 - 인천은 제조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식 기반 서비스 및 첨단기술 산업으로 전환하여 도시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노동 생산성 및 실질 소득 증대

- 함부르크는 현재 성장률은 정체기이나, 이미 완성된 경제 구조를 통해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 노동 효율성 벤치마킹: 함부르크는 근로자의 총 근무 시간이 1.3으로 높으면서도 1인당 GDP가 1.0에 달해 높은 노동 효율성을 보여줌
 - 인천(근무 시간 -1.4, 1인당 GDP -1.6)은 단순히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시간당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제조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시급
- 고용의 질적 개선: 함부르크는 고용률이 1.2로 매우 높음
 - 인천(-0.9)은 낮은 실업률(-1.5)에 안주하지 말고, 비경제활동 인구를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며 실질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도시 규모에 걸맞은 경제 밀도 확보

○ 파리는 거대한 도시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를 유지

- 도시 인구 경쟁력 활용: 파리는 도시 인구 수 지표가 1.7로 압도적이며 이를 통해 거대 내수 시장을 형성
 - 인천(-0.5)은 인구 유입 정책과 함께 거점별 인구 밀도를 높여 서비스 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형 경제 구조를 참고해야 함
- 글로벌 기업 유치 기반 마련: 파리는 법인세율 지표가 -1.7로 매우 낮아 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인천(0.2) 역시 글로벌 기업의 본사 또는 R&D 센터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 패키지 강화 필요

라. 인적자원 및 교육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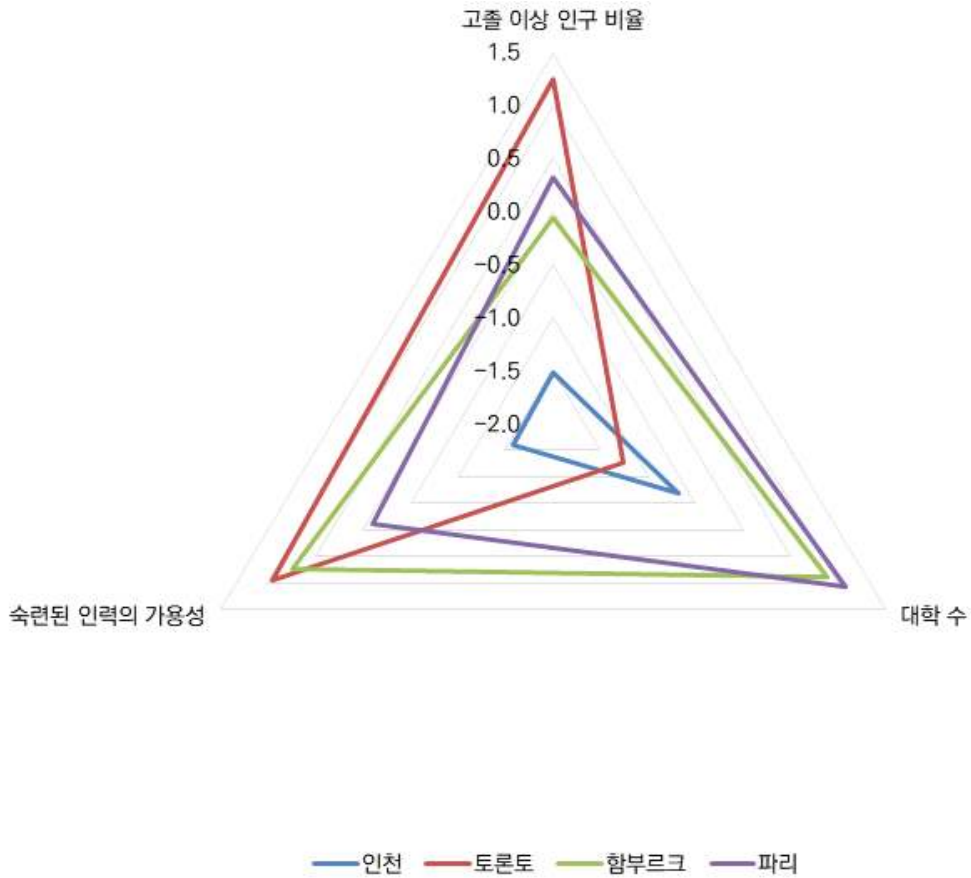
1) 인천시 인적자원 주요 특징 및 현황

- 인천시의 인적자원 지표는 경제 성장 지표와 달리 글로벌 선진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인프라와 인재 확보 양측면에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
 - 숙련 인력 수급의 어려움: 숙련된 인력의 가용성 지표가 -1.6으로 나타나, 비교 대상인 토론토(1.0)나 함부르크(0.7)에 비해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재층이 매우 얇은 것으로 분석
 - 고등 교육 접근성 및 기반 약화: 대학 수 지표는 -0.7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규모와 경제적 위상에 비해 고등 교육 기관의 절대적 확충이 미흡함을 시사
 - 기초 학력 토대의 상대적 열위: 고졸 이상 인구 비율이 -1.5로 조사되어, 지식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인적 자원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선진 도시 대비 낮은 편

2) 선진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 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시는 인재의 '양성'과 '유치' 모든 단계에서 선진 도시들에 비해 경쟁력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인력 공급망 부재: 토론토(1.0) 등은 높은 숙련 인력 가용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인천은 최하위 수준
 - 개선 과제: 지역 내 전략 산업(바이오, 반도체 등)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트랙을 신설하고, 외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주 혜택을 마련해야 함
 - 교육 인프라의 양적·질적 한계: 파리(1.1), 함부르크(0.9)에 비해 대학의 수가 적어 혁신 동력이 부족
 - 개선 과제: 단순 대학 유치를 넘어, 기존 대학들의 연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산학협력 연구 단지를 조성하여 지식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저학력·저숙련 구조: 고졸 이상 인구 비율(-1.5)이 낮아 산업 구조 고도화에 제약이 따름
 - 개선 과제: 시민 대상 평생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반적인 인적 자원의 숙련도를 상향 평준화해야 함

〈그림 3〉 인적자원 및 교육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3) 전략적 시사점

■ 글로벌 전문 인재 유입 및 정주 생태계 구축

- 토론토는 숙련된 인력의 가용성(1.0)과 고졸 이상 인구 비율(1.3)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인재 허브'
 - 글로벌 인재 유입 시스템: 토론토의 글로벌 기술 전략(Global Skills Strategy, GSS)을 벤치마킹하여, 인천 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전략 산업(바이오, 항공) 종사자를 위한 '글로벌 인재 특화 비자 및 정주 지원 패키지'를 강화해야 함
 - GSS는 첨단 산업 분야의 고성과자 인력이 2주 이내 비자 발급 및 배우자 취업 허가 패키지를 제공하는 정주 지원 프로그램
 - 지식 기반 산업의 토대 강화: 높은 학력 수준이 경제적 자유로 이어지는 토론토 모델처럼, 인천도 단순 제조 인력 중심에서 연구개발(R&D)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직으로 인력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고등 교육 학위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 산업 맞춤형 실무 숙련도 극대화

- 함부르크는 대학 수(0.9)와 숙련 인력 가용성(0.7)이 고르게 높아 산업 현장과 교육의 미스매치가 가장 적은 모델
 - 인천형 이원화 교육(Dual System) 도입: 함부르크의 실무 중심 교육 시스템(Duales Studium)을 참고하여 인천 내 전문대학과 지역 기업이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를 대폭 늘려 숙련 인력 가용성(-1.6) 지표를 개선해야 함
 - 재직자 업스킬링(Up-skilling): 함부르크가 보여주는 높은 노동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저숙련 인력을 스마트 팩토리 등 첨단 공정에 투입 가능한 숙련공으로 재교육하는 '지역 산업 전환 교육 센터' 활성화 필요

■ 고등교육 인프라의 밀도 및 네트워크 강화

- 파리는 대학 수(1.1)가 매우 많아 도시 전체가 지식 생산 거점으로 기능
 - 멀티-캠퍼스 클러스터 조성: 파리의 풍부한 대학 인프라를 모델로 삼아, 인천 송도 글로벌 캠퍼스 내 해외 명문 대학과 지역 거점 대학 간의 공동 연구소 및 학점 교류를 상설화하여 교육 인프라 지표(-0.7)를 질적으로 끌어올려야 함
 - 지식 생산의 지역 사회 환원: 파리의 대학들이 도시 혁신의 중심이 되듯, 인천 내 대학들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적 금융 지원을 연계해야 함

마. 혁신 및 스타트업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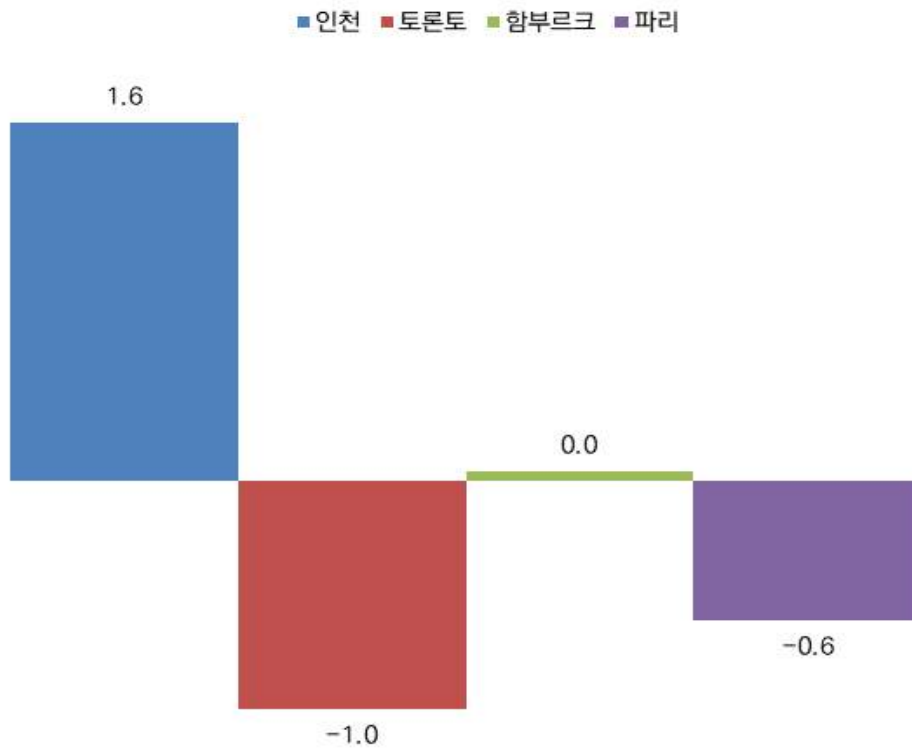
1) 인천시 혁신 자원 주요 특징 및 현황

- 인천시의 혁신 분야 지표는 앞선 경제나 인적자원 지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독보적인 강점을 보유
 - 강력한 연구개발 투자 의지: 인천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은 1.6으로, 비교 대상인 함부르크(0.0), 파리(-0.6), 토론토(-1.0)를 압도하는 수치를 기록
 - 혁신 성장 동력 확보: 국가 및 도시 인구수가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연구개발 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최적의 발판을 마련한 상태

2) 선진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 수치상의 투자 비율은 높으나, 이를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질적 개선 과제가 남아 있음
 - 투자 효율성 및 성과 연계 미흡: 높은 R&D 투자 비율(1.6)에도 불구하고, 이전 분석 데이터상 숙련된 인력 가용성(-1.6)이 낮아 투자가 실제 고부가가치 창업으로 이어지는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개선 과제: R&D 자금이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의 사업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연결성 부족: 토론토나 파리와 같은 글로벌 혁신 거점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투자 자본의 규모는 크지만 글로벌 네트워킹 지표는 아직 보완이 필요
 - 개선 과제: 국내용 연구개발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술 규제 혁신과 해외 벤처캐피털(VC) 유치 환경을 조성해야 함

〈그림 4〉 혁신 및 스타트업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3) 전략적 시사점

■ '인재 기반' 기술 창업 생태계 고도화

- 토론토는 R&D 지출 비율(-1.0)은 낮지만 숙련 인력 가용성(1.0)이 매우 높음
 - 인천은 높은 자본 투입(1.6)을 바탕으로 토론토의 '우수 인재 유입 환경' 벤치마킹 필요
 - 대학 연구소가 창업의 산실이 되는 토론토 모델을 연계하여, 인천 내 대학들에 R&D 자금을 집중 투여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즉각 기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실무형' 혁신 및 제조-기술 융합

- 함부르크는 안정적인 R&D 수준(0.0)과 높은 고용률(1.2)을 유지하는 실무 강점 도시
 - 인천의 강점인 제조 기반 산업에 함부르크식 '응용 기술 혁신'을 접목 필요
 - 신규 R&D 투자가 기존 제조업의 스마트화나 로봇 산업 등 실무 현장에 즉각 반영되도록 유도하여, 기술 혁신이 공장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규제 혁신'을 통한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화

- 파리는 낮은 법인세율(-1.7)과 풍부한 교육 인프라(대학 수 1.1)를 통해 혁신을 주도
 - 파리의 'Station F'(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와 같은 스타트업 캠퍼스 모델 접목 필요
 - 인천의 높은 R&D 자금력을 바탕으로 파리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샌드박스를 결합하여,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인천을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게 만드는 '글로벌 혁신 플랫폼' 전략 필요

바. 사회적 안정성 및 포용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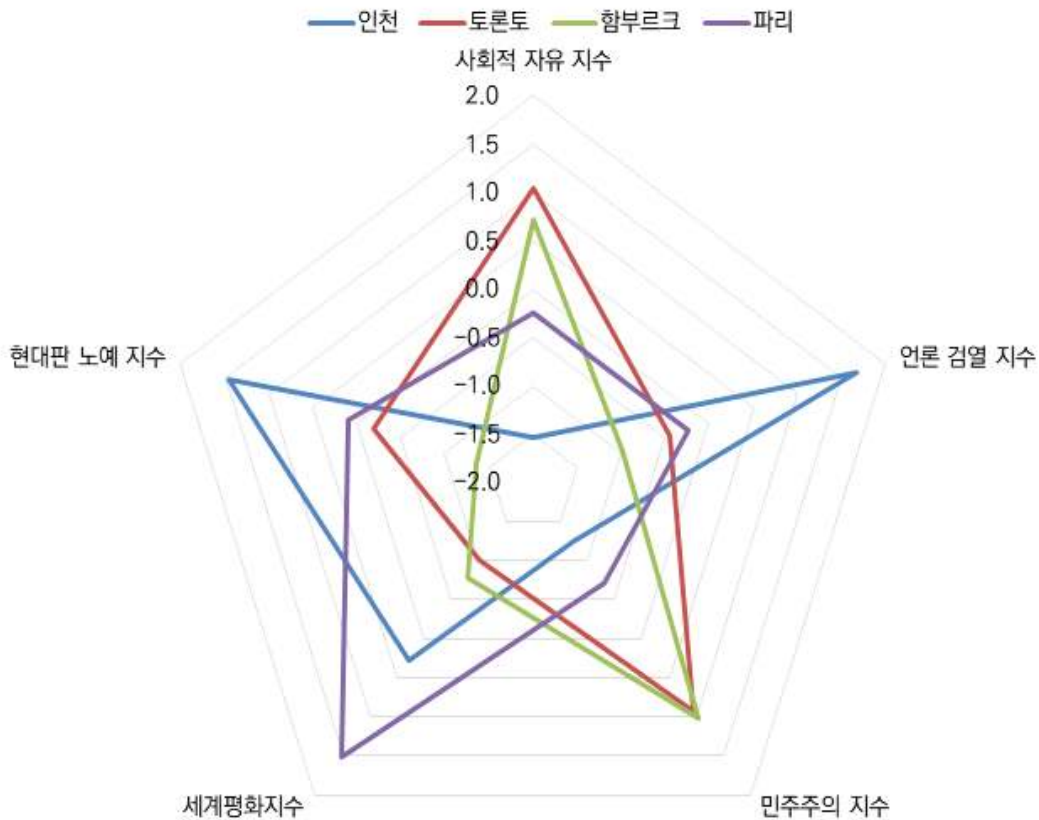
1) 인천시 사회적 지표 주요 특징 및 현황

- 인천시의 사회적 지표는 안전과 평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나,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본 분야는 인천시가 아닌 국가 단위 지표로 구성되어 국가 정책의 의존도가 매우 큼. 따라서 실질적인 인천시의 사회적 안정성 및 포용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교적 안정적인 치안 및 평화 유지: 세계평화지수가 0.3으로 토론토(-1.0)나 함부르크(-0.8)보다 높게 나타나, 도시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평화로운 환경은 상대적으로 우수
 - 사회적 자유 및 민주주의 지수 저조: 사회적 자유 지수는 -1.5, 민주주의 지수는 -1.3으로 분석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민 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 실현이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줌
 - 권리 보호 지표의 취약성: 언론 검열 지수(1.7)와 현대판 노예 지수(1.5)가 높게 나타나, 정보의 투명성과 보편적 인권 보호 체계에 대한 점검이 시급

2) 선진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 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적 가치(자유, 민주주의) 측면에서 선진 도시들에 비해 경쟁력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낮은 사회적 자율성 및 표현의 자유: 토론토(1.0)와 함부르크(0.7)는 높은 사회적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인천은 최하위권
 - 개선 과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언론 검열 우려를 해소해야 함
 -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의 미흡: 함부르크(1.0)와 토론토(0.9)에 비해 민주주의 지수(-1.3)가 현저히 낮음
 - 개선 과제: 시정 운영에 있어 시민 참여 예산제 확대, 디지털 민주주의 도입 등 시민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
 - 인권 보호 사각지대 존재: 현대판 노예 지수(1.5)가 높아 노동 인권 및 취약 계층 보호가 취약할 가능성이 큼
 - 개선 과제: 근로 현장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보호 조례를 강화해야 함

〈그림 5〉 사회적 안정성 및 포용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3) 전략적 시사점

■ '사회적 자유' 기반의 포용적 공동체 형성

○ 토론토는 사회적 자유 지수(1.0)가 가장 높으며 다양성이 존중받는 도시

- 토론토의 다문화 포용 정책과 시민 자유 보장 시스템 벤치마킹
- 인천은 글로벌 인재와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차별 금지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열린 도시' 분위기를 조성 필요

■ '숙의 민주주의' 정착과 시민 참여 확대

○ 함부르크는 민주주의 지수(1.0)가 가장 높고 시민의 정책 참여가 활발

- 함부르크의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 모델 참고
-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인천형 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해야 함

■ '글로벌 가치' 중심의 인권 및 평화 리더십

○ 파리는 세계평화지수(1.5)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인권의 상징적 도시

- 파리의 인권 존중 전통과 평화 가치 확산 전략 참고

- 인천은 UN 산하 국제기구들이 밀집한 송도의 강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평화·인권 포럼' 등을 정례화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인권 보호 지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고도화

사. 보건 및 공중위생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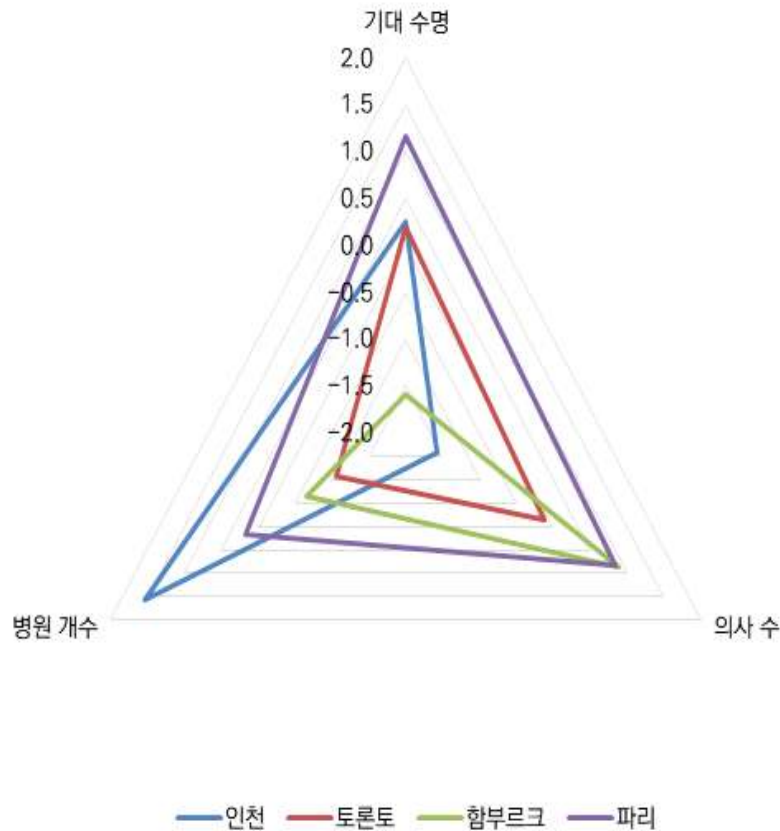
1) 인천시 보건 및 공중위생 주요 특징 및 현황

- 인천시의 보건 의료 지표는 의료 인프라의 양적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전문인력 확보와 같은 질적 서비스 역량 측면에서는 선진도시 대비 뚜렷한 차이를 보임
 - 풍부한 의료 기관 인프라: 병원 개수 지표가 1.5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시민들의 물리적인 의료 기관 접근성과 하드웨어적 기반은 매우 우수한 상태
 - 평균 수준의 건강 기대치: 기대 수명 지표는 0.3으로 토론토(0.2)나 함부르크(-1.6)보다 높고 파리(1.2)보다는 낮은 중상위권 수준을 유지
 - 전문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 의사 수 지표가 -1.6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풍부한 병원 인프라를 뒷받침할 전문 의료 인력 수급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

2) 선진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 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시는 '병원은 많으나 의사는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나타남
 - 의료 서비스의 질적 역량(의사 수) 부족: 함부르크(0.9)와 파리(0.8)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천은 가장 낮은 수치(-1.6)를 보임
 - 개선 과제: 지역 내 의과대학 정원 확보 및 전문의 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인프라 규모에 걸맞은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
 -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시스템의 고도화 필요: 파리(1.2)와 같이 높은 기대 수명을 달성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보건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흡
 - 개선 과제: 치료 중심의 병원 이용을 넘어, 선제적 건강 관리와 공중위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기대 수명을 상향 평준화 필요
 -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병원 개수(1.5)는 많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만족도로 이어지는 데이터적 연결고리가 강화 필요
 - 개선 과제: 많은 병원 자원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및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그림 6〉 보건 및 공중위생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3) 전략적 시사점

■ '커뮤니티 기반'의 보건 의료 통합 케어

- 토론토는 병원 개수(-1.1)는 적으나 기대 수명(0.2)과 의사 수(-0.1)를 효율적으로 관리
 - 토론토의 효율적인 1차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
 - 인천은 많은 병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밀착된 주치의 제도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형 병원 쓸림 현상을 방지하고 보건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전문인력 중심'의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

- 함부르크는 병원 개수(-0.7) 대비 의사 수(0.9) 비율이 매우 높은 전문성 중심 도시
 - 인천은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임상 연구 전문의' 등 고도로 숙련된 의료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 병원에 정착할 수 있는 연구 중심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공공 보행 및 환경' 연계형 장수 도시 모델

○ 파리는 가장 높은 기대 수명(1.2)과 안정적인 의료 인력(0.8)을 보유

- 파리의 건강 증진형 도시 설계 모델을 접목
- 보건 의료를 병원 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15분 도시'와 같은 보행 친화적 환경을 보건 정책과 결합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제공 필요

아. 문화, 여가 및 관광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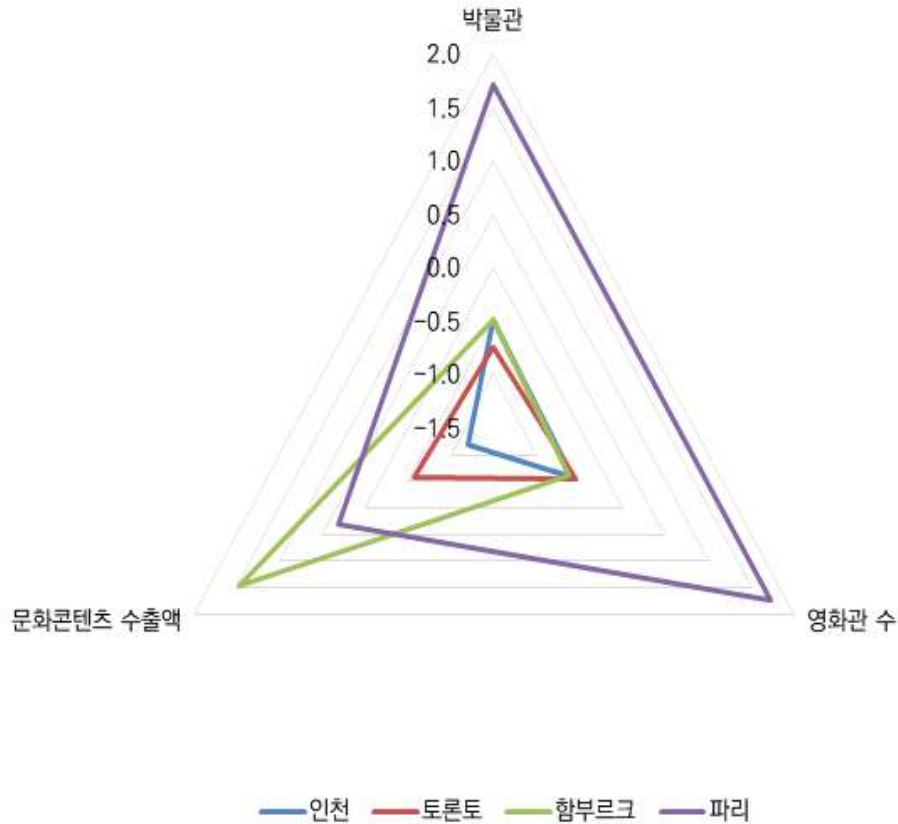
1) 인천시 문화 및 관광 주요 특징 현황

- 인천시의 문화 및 관광 지표는 인프라의 양적 공급과 콘텐츠 수출 측면에서 선진 도시들에 비해 위축된 양상을 보임
 - 문화 기반 시설의 부족: 박물관 지표(-0.5)와 영화관 수 지표(-0.6) 모두 음수 값을 기록
 - 도시 규모에 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전시 및 관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시사함
 - 문화 콘텐츠 산업의 낮은 경쟁력: 문화콘텐츠 수출액 지표가 -1.2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음
 - 이는 인천 내 문화 산업이 지역 내 소비에 머물러 있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만한 킬러 콘텐츠 생산 역량이 부족함을 나타냄
 - 시민 만족도와 향유의 괴리: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는 양호한 편이나, 전시 시설 등 핵심 인프라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실제 체감하는 문화 만족도는 낮은 특성이 있음

2) 선진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 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시는 '문화 인프라의 확충'과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진도시 대비 뚜렷한 열세를 보임
 - 인프라 밀도 및 접근성 저하현황: 파리(1.7)와 같은 글로벌 문화 거점에 비해 박물관 및 영화관 인프라가 현저히 낮음
 - 개선 과제: 현재 추진 중인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및 개항장 일대 복합문화공간 재정비 등 거점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야 함
 - 문화 산업의 경제적 성과 부진현황: 함부르크(1.5)는 높은 문화콘텐츠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인천(-1.2)은 최하위권
 - 개선 과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등 기존 축제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디지털 관광 플랫폼 '인천e지' 고도화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하는 구조 마련

〈그림 7〉 문화, 여가 및 관광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3) 전략적 시사점

■ '생활 밀착형' 문화 콘텐츠 및 지원 확대

○ 토론토는 인프라 지표는 낮으나 효율적인 문화 지원 정책을 펼침

- 인천은 '천원 문화티켓' 정례 운영 및 '요기조기 음악회' 확대 등 토론토식 생활 밀착형 문화 정책을 강화 필요
- 대규모 시설 건립 이전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저렴하고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콘텐츠 수출' 및 산업적 고부가가치 창출

○ 함부르크는 문화콘텐츠 수출액(1.5)이 압도적인 산업 중심 도시임

- 함부르크의 미디어·콘텐츠 클러스터 모델을 벤치마킹 필요
- 인천의 높은 R&D 투자 역량(1.6)을 문화 산업과 결합하여, 디지털 관광 기술(AI 여행비서 등) 및 실감형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

■ '인프라 거점' 기반의 글로벌 관광 허브화

- 파리는 박물관(1.7)과 영화관(1.7) 등 압도적인 문화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임
 - 파리의 루브르나 오르세와 같은 거점 박물관 중심의 관광 전략 연계 필요
 - 인천은 인천뮤지엄파크를 단순히 지역 시설이 아닌 글로벌 랜드마크로 브랜드화하고, 개항장 근대문화유산을 파리식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해야 함

자. 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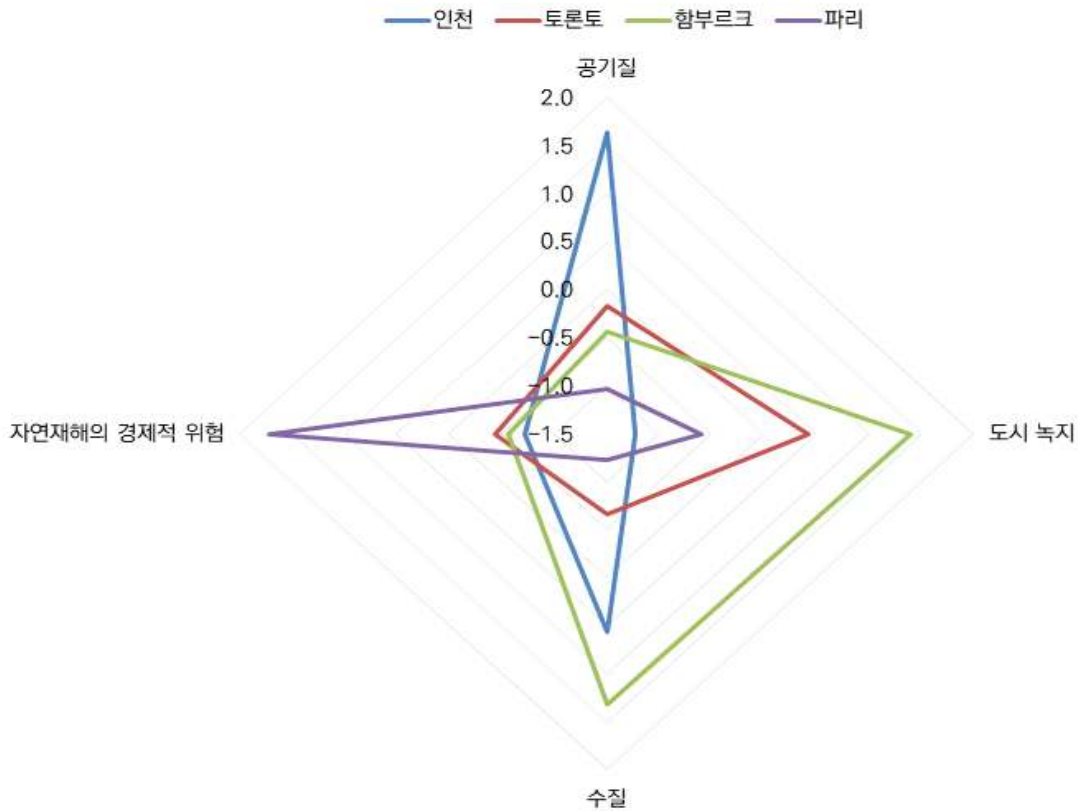
1) 인천시 환경 자원 주요 특징 및 현황

- 인천시의 환경 지표는 기초적인 환경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이거나,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보와 자연재해 대응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
 - 우수한 기초 환경질: 공기질 지표가 1.6으로 비교 대상 도시 중 가장 높으며, 수질 지표 또한 0.6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환경 인프라의 질은 우수
 - 도시 녹지 공간의 부족: 도시 녹지 지표가 -1.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도심 내 생태 공간과 휴식 녹지가 선진도시 대비 현저히 부족함을 보여줌
 - 자연재해 대응력 취약: 자연재해의 경제적 위험 지표가 -0.7로 나타나,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 회복력(Resilience) 강화가 필요

2) 선진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 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시는 '깨끗한 환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녹지 확충과 재난 대응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나타남
 - 도심 생태 네트워크 및 녹지율 저조현황: 함부르크(1.4)와 토론토(0.4)는 풍부한 녹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천(-1.2)은 최하위권임
 - 개선 과제: 산업 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및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회복력 미흡: 파리(1.7)와 비교했을 때 자연재해에 대한 경제적 방어 기제가 약함
 - 개선 과제: 홍수 및 가뭄 등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도시의 물리적 방재 성능을 강화해야 함
 - 수질 관리의 고도화 유지현황: 현재 수질(0.6)은 양호하나 함부르크(1.3) 수준의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정밀 관리가 필요
 - 개선 과제: 하수 처리 시설의 현대화와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시 깨끗한 수자원 공급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함

〈그림 8〉 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3) 전략적 시사점

■ '입체적 녹지' 확충을 통한 도심 생태 네트워크 구축

○ 함부르크의 '그린 네트워크(Grünes Netz)' 모델 (도심 전체를 녹색 축으로 연결하여 자동차 없이 공원만으로 이동 가능한 구조)

- 인천은 산업 단지 주변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과 더불어,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포켓 공원'을 격자형으로 배치하여 선진 도시 수준의 생태 거점 연결망 구축 필요

■ '스마트 회복력' 기반의 기후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 파리의 '적응형 도시 인프라' 및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홍수 예측 및 도시 물리적 방재 성능 강화)

- 기후 재난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도록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심도 저류조 설치 등 물리적 방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재난에 강한 도시(Resilient City)'로 거듭나야 함

차. 도시 인프라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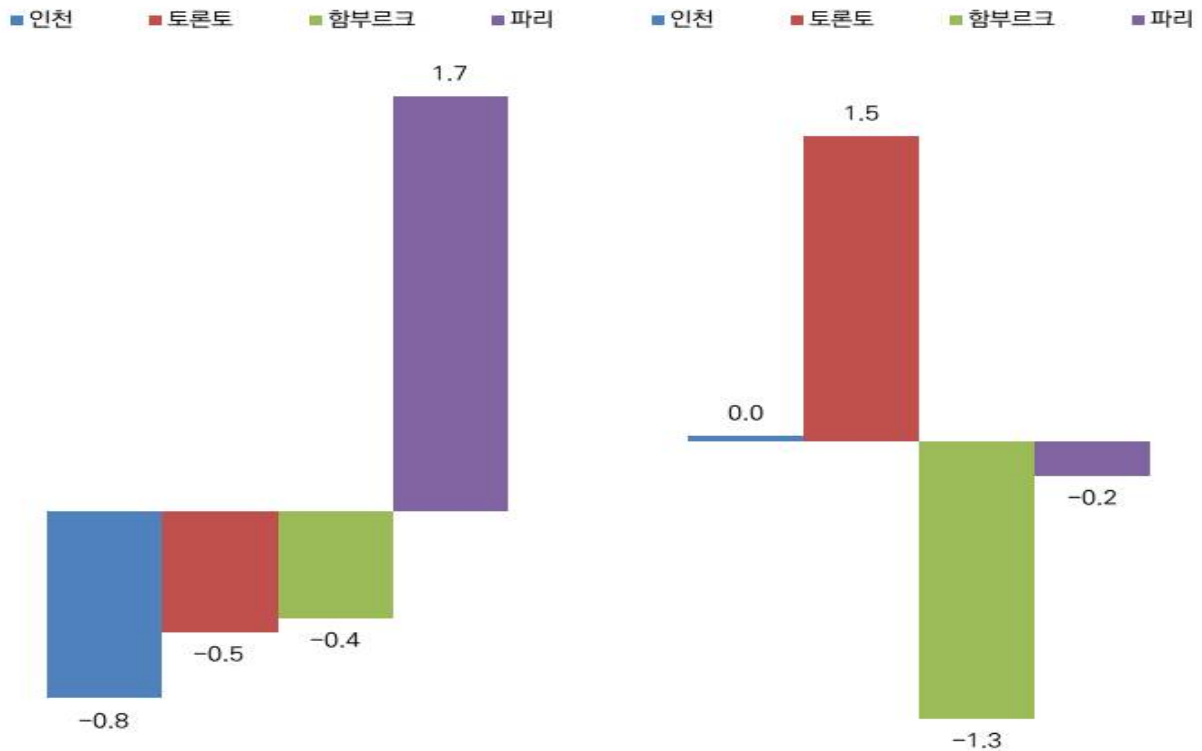
1) 인천시 도시 인프라 주요 특징 및 현황

- 인천시의 인프라 지표는 교통 소통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거나, 대중교통망의 촘촘함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선진도시 대비 확장 여력이 필요한 상황
 - 안정적인 교통흐름: 교통 혼잡도 지표가 0.0으로 나타나, 비교 대상인 토론토(1.5)에 비해 정체 현상이 덜하며 상대적으로 원활한 도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도시철도망 인프라의 한계: 지하철역 수 지표가 -0.8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음
 - 이는 도시 규모와 인구 밀도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궤도 교통의 접근성이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

2) 선진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 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네트워크 확충이 핵심 과제로 나타남
 - 대중교통 거점 인프라 부족: 파리(1.7)와 같은 초밀집 철도망을 갖춘 도시와 비교했을 때 지하철역 수(-0.8)가 현저히 부족
 - 개선 과제: 현재 추진 중인 GTX 노선 및 인천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을 가속화하여, 도시 전역의 철도 서비스 반경을 넓히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제고해야 함
 - 교통 혼잡 가속화 우려 대비: 현재는 혼잡도가 낮으나(0.0), 향후 도시 개발에 따른 차량 증가 시 토론토(1.5)와 같은 극심한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개선 과제: 혼잡이 심화되기 전에 지능형 교통 체계(ITS) 고도화 및 수요 관리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함

〈그림 9〉 도시 인프라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3) 전략적 시사점

■ '수요 관리' 중심의 선제적 교통 정체 대응

- 토론토는 높은 교통 혼잡도(1.5)를 겪고 있는 반면, 인천(0.0)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
 - 토론토가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모델을 벤치마킹
 - 인천은 정체가 심해지기 전에 역세권 고밀 개발과 연계한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을 강화하여 토론토식 정체 고착화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 '효율적 균형' 기반의 모빌리티 네트워크

- 함부르크는 지하철역 수(-0.4)와 교통 혼잡도(-1.3)가 모두 안정적인 '저혼잡-고효율' 모델
 - 함부르크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hv v switch)' 모델을 접목 필요
 - 부족한 지하철역(-0.8)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철도-공유 모빌리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인프라의 공백을 체계적으로 메워야 함

■ '초연결' 인프라 기반의 15분 생활권 완성

○ 파리는 압도적인 지하철역 수(1.7)를 바탕으로 가장 촘촘한 도시 연결성을 확보

- 파리의 '15분 도시' 인프라 전략을 접목하여, 단순히 역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각 지하철역 거점을 중심으로 생활 필수 시설이 밀집되도록 설계하여 시민들이 차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초연결 인천'의 기반을 닦아야 함

카. 국제 연결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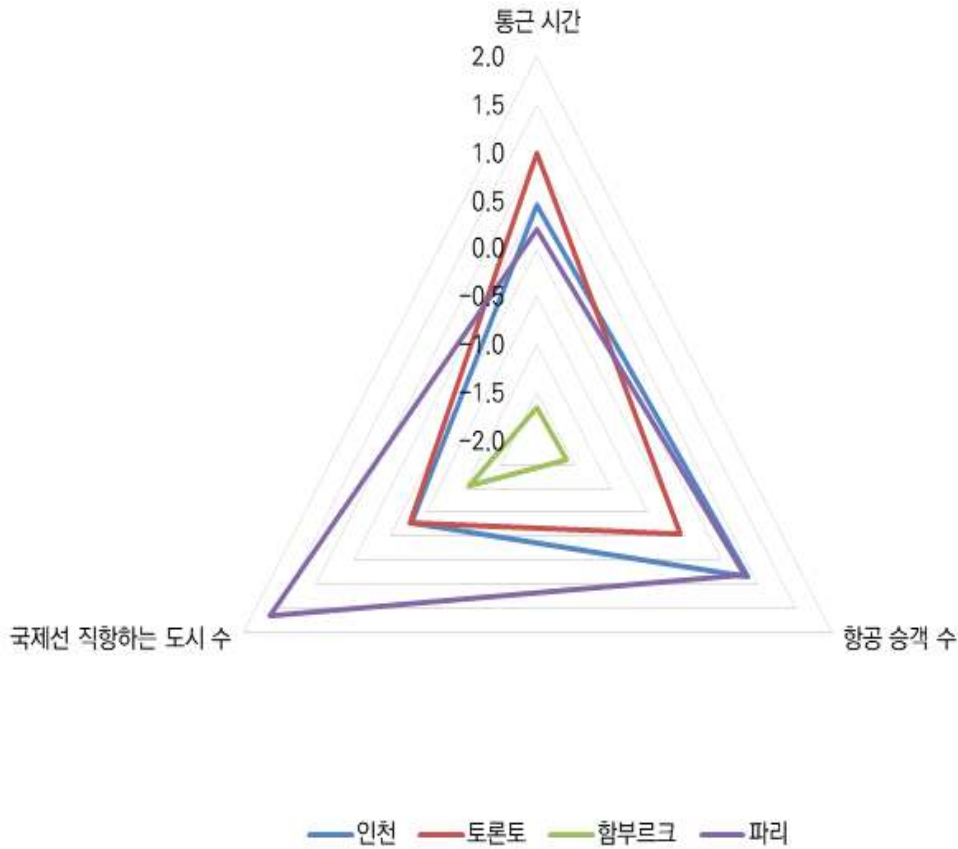
1) 인천시 국제 연결성 주요 특징 및 현황

- 인천시는 동북아 허브 공항을 보유한 도시답게 항공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실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시민들의 이동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강력한 항공 승객 수송 능력: 항공 승객 수 지표가 0.9로 나타나, 비교 대상인 파리(0.8)를 상회하며 토론토(-0.1)나 함부르크(-1.6) 대비 압도적인 항공 수요 처리 능력을 입증
 - 국제선 직항 노선의 한계: 풍부한 승객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직항하는 도시 수 지표는 -0.3으로, 파리(1.6) 등 글로벌 초연결 도시와 비교했을 때 노선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
 - 상대적으로 긴 통근 시간: 통근 시간 지표가 0.5로 나타나 파리(0.2)보다 높고 함부르크(-1.7)와는 큰 격차를 보임
 - 이는 공항으로의 접근성이나 도시 내부 교통 효율성이 시민의 체감 편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2) 선진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 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시는 '공항 인프라의 활용'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내부 접근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분석됨
 - 글로벌 네트워크의 질적 확장 미흡: 파리(1.6)에 비해 직항 노선 수(-0.3)가 부족하여 항공 승객 수(0.9)라는 양적 지표가 질적 연결성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 과제: 신규 국제 노선 발굴 및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과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다변화 전략이 필요
 - 광역 교통망 연결성 부족에 따른 통근 부담: 함부르크(-1.7)는 통근 시간이 매우 짧으나 인천(0.5)은 상대적으로 긴 편
 - 개선 과제: 공항 인프라가 도시 경제와 시민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GTX 등 고속 광역 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함

〈그림 10〉 국제 연결성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3) 전략적 시사점

■ '허브 공항 기반'의 비즈니스 인프라 고도화

- 토론토는 항공 승객 수(-0.1)는 인천보다 낮으나 안정적인 국제 연결망을 유지
 - 토론토 피어슨 공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천공항 주변을 단순 환승지가 아닌 '공항 경제권'으로 육성 필요
 - 항공 물류와 비즈니스 기능을 결합하여 높은 항공 수요(0.9)를 실질적인 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함

■ '저지체-고효율' 모빌리티 환경 조성

- 함부르크는 통근 시간(-1.7) 지표가 가장 우수한 초효율 교통 도시
 - 함부르크의 철저한 수요 관리와 통합 교통 시스템 벤치마킹

- 인천의 긴 통근 시간(0.5)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항 배후 단지와 도심 간의 접근성을 함부르크 수준으로 개선하여 도시의 정주 매력도를 높여야 함

■ '글로벌 초연결' 네트워크 및 관광 경쟁력 확보

- 파리는 국제선 직항 도시 수(1.6)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수준
- 파리의 샤를 드 골 공항이 가진 전 세계적 연결성을 벤치마킹
 - 단순히 노선을 늘리는 것을 넘어 파리처럼 전 세계 주요 거점 도시들과의 직항로를 대폭 확충하여, 인천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잇는 진정한 '글로벌 연결 허브'로 자리매김 필요

타. IT 및 디지털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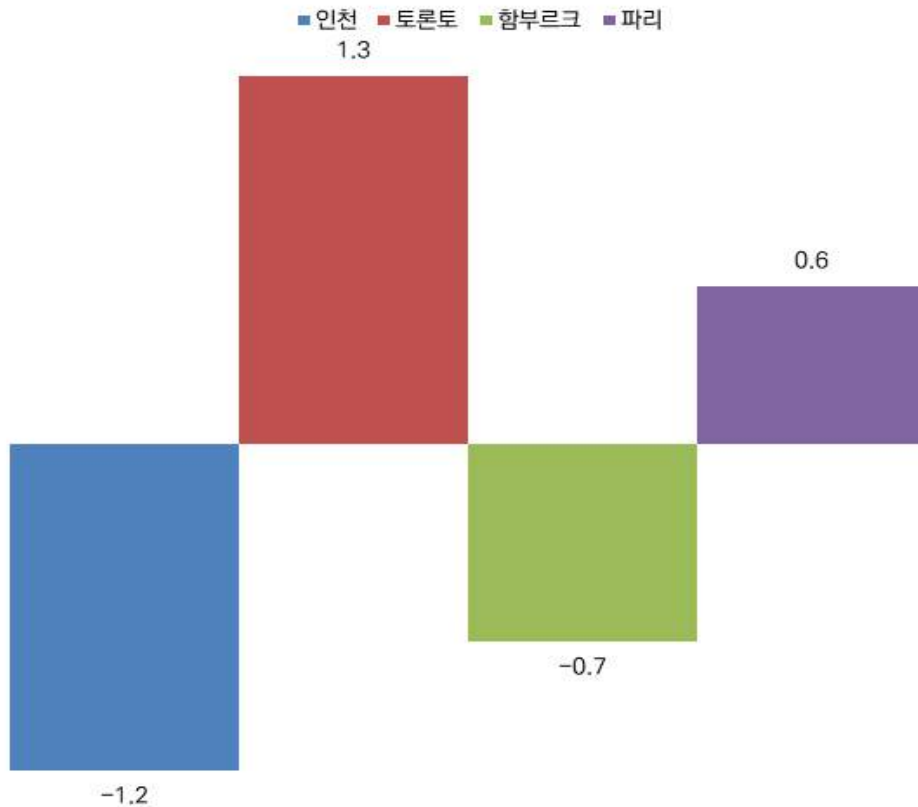
1) 인천시 디지털 환경 주요 특징 및 현황

- 인천시의 디지털 경쟁력은 현재 인적 자원 및 교육 지표와 유사하게 글로벌 선진 도시 대비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공공 및 민간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정체되어 있는 양상
 - 온라인 서비스 지수 저조: 온라인 서비스 지수가 -1.2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음
 - 이는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이나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 및 활용도가 글로벌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시사
 - 디지털 혁신 동력의 부재: 앞선 혁신 지표에서 R&D 투자 비율(1.6)은 높게 나타났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디지털 서비스나 IT 산업의 성과로 전환되지 못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선진도시 대비 취약 요인 및 개선 과제

- 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시는 '물질적 투자'를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 역량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나타남
 - 공공 및 행정의 디지털 전환 지연: 토론토(1.3)와 파리(0.6) 등은 높은 온라인 서비스 지수를 기록하며 디지털 정부를 실현하고 있으나 인천은 최하위권
 - 개선 과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인천e지 등)의 기능을 전면 고도화해야 함
 - 디지털 인재 및 생태계 부족: 숙련된 인력 가용성(-1.6)의 한계가 IT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며 디지털 전환을 이끌 전문가 집단이 부족
 - 개선 과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및 IC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함

〈그림 11〉 IT 및 디지털 분야 도시경쟁력 진단 결과



3) 전략적 시사점

■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혁신

- 토론토는 온라인 서비스 지수(1.3)에서 압도적인 1위이며, 시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토론토와 같은 시민 참여형 스마트 시티 모델을 벤치마킹(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 주민 협의체 등을 통해 도시 운영 참여)
 - 인천의 높은 R&D 투자(1.6)를 시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 투입하여 온라인 서비스 지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산업 융합형' 디지털 전환

- 함부르크는 온라인 서비스 지수는 낮으나(-0.7),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높은 실용주의 모델
 - 함부르크의 '스마트 포트(Smart Port)' 전략을 벤치마킹, 인천의 강점인 항만과 항공 물류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인프라에 디지털 트윈 및 IoT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

■ '제도적 기반' 중심의 디지털 허브화

- 파리는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 지수(0.6)와 강력한 규제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
 - 파리의 'Station F'와 같은 디지털 스타트업 생태계 모델을 벤치마킹
 - 인천의 높은 법인세율(0.2)을 파리(-1.7) 수준으로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디지털 기업 특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글로벌 IT 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이 모여드는 '디지털 경제 자유구역'을 완성해야 함

제5절

인천광역시 도시경쟁력 개선방안 제안

가. 인적 자원 및 교육: '지식 생산 도시'로의 체질 개선

- 인천은 현재 숙련 인력 가용성(-1.6)이 매우 낮아, 혁신 투자가 산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인재 유입 전담 기구(Inbound Center) 설치: 토론토의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자 발급 지원, 주거 매칭,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센터를 구축
 - IFEZ-대학-전략 산업 연계 '듀얼 시스템(Dual System)': 함부르크식 실무 교육을 모델로, 바이오 및 항공 정비(MRO) 학과 학생들이 학기의 50%를 기업 현장에서 실습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인천형 산학 상생 모델'을 추진
 - 재직자 업스킬링(Up-skilling) 펀드 조성: 고졸 이상 인구 비율(-1.5)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직자들이 야간/주말에 고등 교육을 받을 시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는 제도 운영

나. IT 및 디지털 혁신: '시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 실현

- 온라인 서비스 지수(-1.2) 최하위권을 탈출하기 위해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집중 필요
 - 인천e지(App)의 슈퍼앱(Super-App)화: 토론토의 높은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1.3)을 목표로, 행정, 교통, 복지, 관광 결제를 하나의 앱에서 해결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시티 운영: 함부르크의 '스마트 포트'를 벤치마킹하여 항만·항공 물류 흐름을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체를 사전 예측하는 지능형 관리 체계를 구축
 -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및 스타트업 연계: 공공 데이터 포털(Filter B)을 고도화하여 민간 스타트업들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예: 맞춤형 보건 서비스)을 창출 하도록 지원

다.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고부가가치 창업 생태계' 확충

- 높은 GDP 성장률(1.2)을 실질적인 1인당 GDP(-1.6) 상승으로 연결 필요
 -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확대: 경제적 자유 지표(-0.6)를 토론토(1.1)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특정 구역 내에서는 법령에 금지된 것 외에 모든 비즈니스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

- 글로벌 기업 본사(HQ) 유치 인센티브: 파리의 낮은 법인세 지표(-1.7)를 참고하여, 아시아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소속 임직원 정주 지원금을 지급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Born Global): 파리의 'Station F'와 같은 창업 거점을 구축하고, R&D 예산(1.6)의 일부를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 특허 출원 전용 펀드'로 전환

라. 도시 인프라 및 연결성: '15분 초연결 도시' 완성

- 지하철역 수(-0.8)와 통근 시간(0.5) 문제를 물리적 확충과 소프트웨어적 통합으로 해결함
 - GTX 및 궤도망 조기 구축: 파리(1.7) 수준의 촘촘한 지하철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GTX 노선의 적기 개항과 트램 도입을 통한 생활권 내 연결성을 강화
 - 통합 모빌리티(MaaS) 상용화: 함부르크 모델을 연계하여 공항, 지하철, 공유 자전거를 한 번의 결제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실질 통근 시간을 20분대로 단축
 - 공항 경제권(Aerotropolis) 육성: 항공 승객 수(0.9)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항 주변에 MRO, 면세 쇼핑, 국제 컨벤션이 결합된 복합 지구를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를 창출

마. 문화 및 환경: '지속 가능한 품격 도시' 브랜딩

- 부족한 문화 시설(-0.5)과 녹지(-1.2)를 도심 재생과 연결하여 확보
 - 인천뮤지엄파크의 글로벌 랜드마크화: 파리의 뮤지엄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세계적 수준의 전시 콘텐츠를 상시 유치하고, 문화콘텐츠 수출(-1.2)을 위한 디지털 아트 클러스터를 조성
 - 도시 전체의 '녹색 그물망(Green Network)' 구축: 함부르크(1.4)의 사례처럼 고립된 공원들을 연결하는 생태 회랑을 조성하여 도심 어디서든 5분 내 녹지에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빈페이지)

제4장

04

글로벌지표 관리

제1절 인천시 데이터 체계화 방안

제2절 지표 관리 중장기 계획

(빈페이지)

04

글로벌지표 관리

제1절

인천시 데이터 관리 체계화 방안

가.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

- 단발성 성과 탈피: 현재의 성과는 2025년의 일시적 결과에 그치지 않아야 하며, 향후 타 기관 추가 등재 및 지속적인 순위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데이터 체계 마련: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임

나. 데이터 확보 체계 및 관리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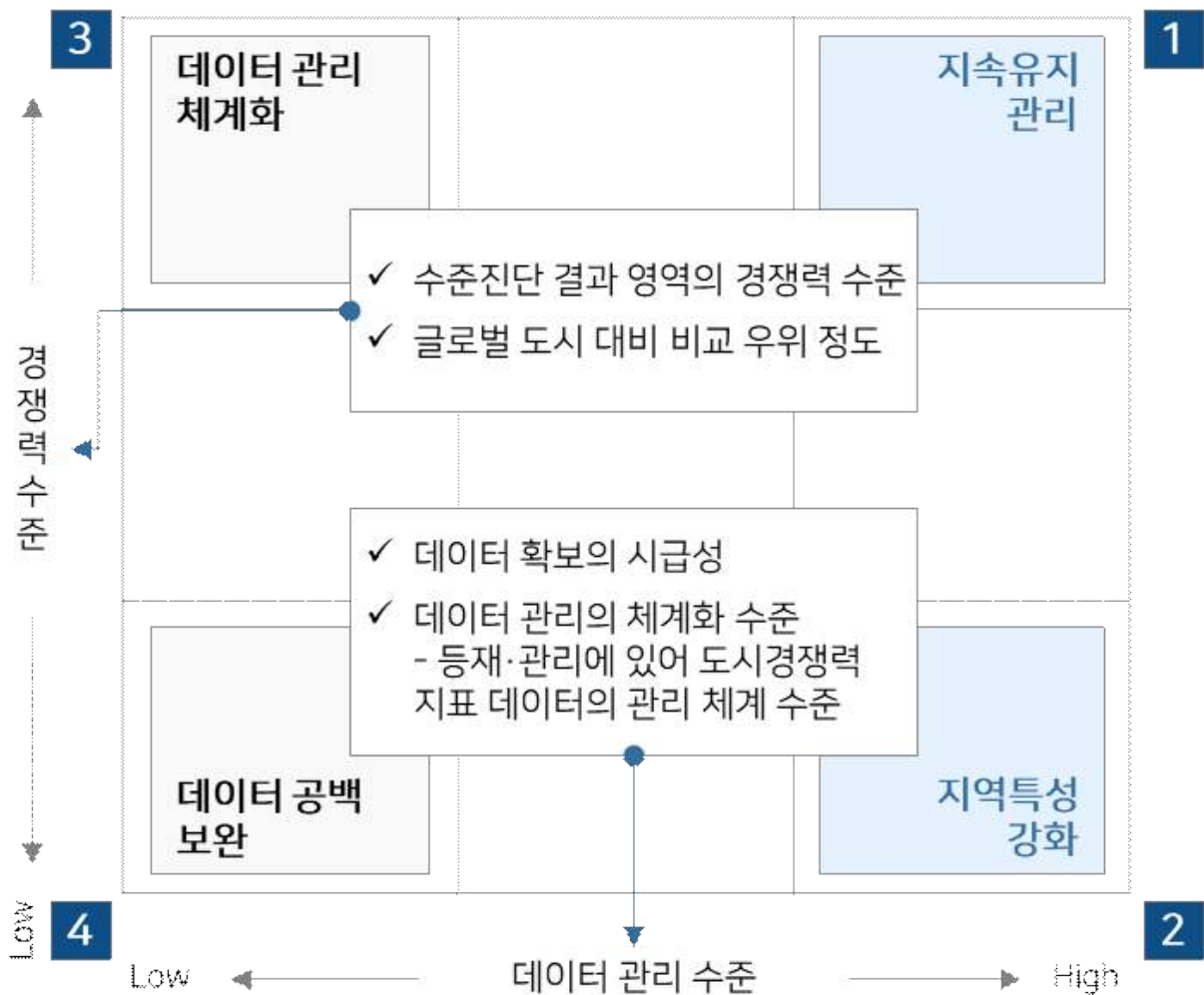
- 체계 구축 목표: 공백지표 보완 및 중장기적 지표 관리를 위해 데이터 성격에 따른 맞춤형 확보 방안(Type A~E)을 수립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함
 - Type A (85개): KOSIS 등 국내 공공데이터(오픈데이터)를 통해 확보 가능한 지표로, 업데이트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최신화함
 - Type B (39개): 오픈데이터 외 해외 기관 보고서나 사이트 인용 등을 통해 자체 수집이 필요한 지표로, 수집 링크와 방식을 구체화하여 관리함
 - Type C (19개): 타 기관에 데이터 요청 시 즉시 수집이 가능한 유형으로, 요청 대상 및 주기를 설정하여 협의를 진행함
 - Type D (0개): 타 기관 요청이 필요하나 별도의 데이터 입력 서식 제작이 선행되어야 하는 유형으로, 필요시 Type C에서 재분류하여 관리함
 - Type E (88개): 정성지표이거나 직접 확보가 불가능하여 대체 데이터가 필요한 지표로, 정성 지표 대체 방안 및 해석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함

다. 매트릭스(Matrix) 기반 진단 모델

- '경쟁력 수준(글로벌 도시 대비 비교우위)'과 '데이터 관리 수준(데이터 확보 시급성 및 체계화 정도)'을 축으로 4분면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지표별 경쟁력 수준과 데이터 관리 수준 평가

- 지속 유지관리 (High Comp / High Mgmt): 경쟁력과 데이터 관리 수준이 모두 높은 분야로, 현재의 높은 관리 수준을 유지하며 성과를 지속함
- 지역특성 강화 (Low Comp / High Mgmt): 데이터 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삶의 질 등 경쟁력이 다소 낮은 분야로, 순위권 등재를 위한 정책적 강화가 필요함
- 데이터 관리 체계화 (High Comp / Low Mgmt): 잠재적 경쟁력은 높으나 데이터 측정이 미흡한 분야로,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통해 성과를 가시화해야 함
- 데이터 공백 보완 (Low Comp / Low Mgmt): 경쟁력과 데이터 관리 모두 취약한 분야로, 데이터 공백을 우선적으로 메우고 데이터 기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야 함

〈그림 12〉 매트릭스 활용 인천광역시 ‘삶의 질 기반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



자료 : 저자 작성

라. 데이터 체계화 5대 핵심 과제 추진 방안

○ 글로벌 수준의 지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단계 데이터 체계화 방안을 제안함

- 데이터 저장소 구축: 모든 세부 항목 데이터를 저장·분석할 수 있는 보안성과 확장성을 갖춘 단일 소스(Single Source) DB 시스템 구축
- 데이터 표준 양식 정의: 글로벌 지표 기준에 맞춰 데이터 정의, 수집 주기, 포맷 등을 명시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 관계자 R&R 정립: 부서 간 데이터 제출 의무와 절차를 명시한 공식 내부 협약을 체결하여 비공식적 협조 요청의 한계를 극복함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부서별 데이터 품질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검증 및 오류 수정을 수행
- 데이터 공개 포털 구축: 인천의 삶의 질 현황을 글로벌 기관 및 시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영문/국문 웹사이트 구축

〈그림 13〉 인천광역시 ‘삶의 질 기반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 단계별 목표 및 접근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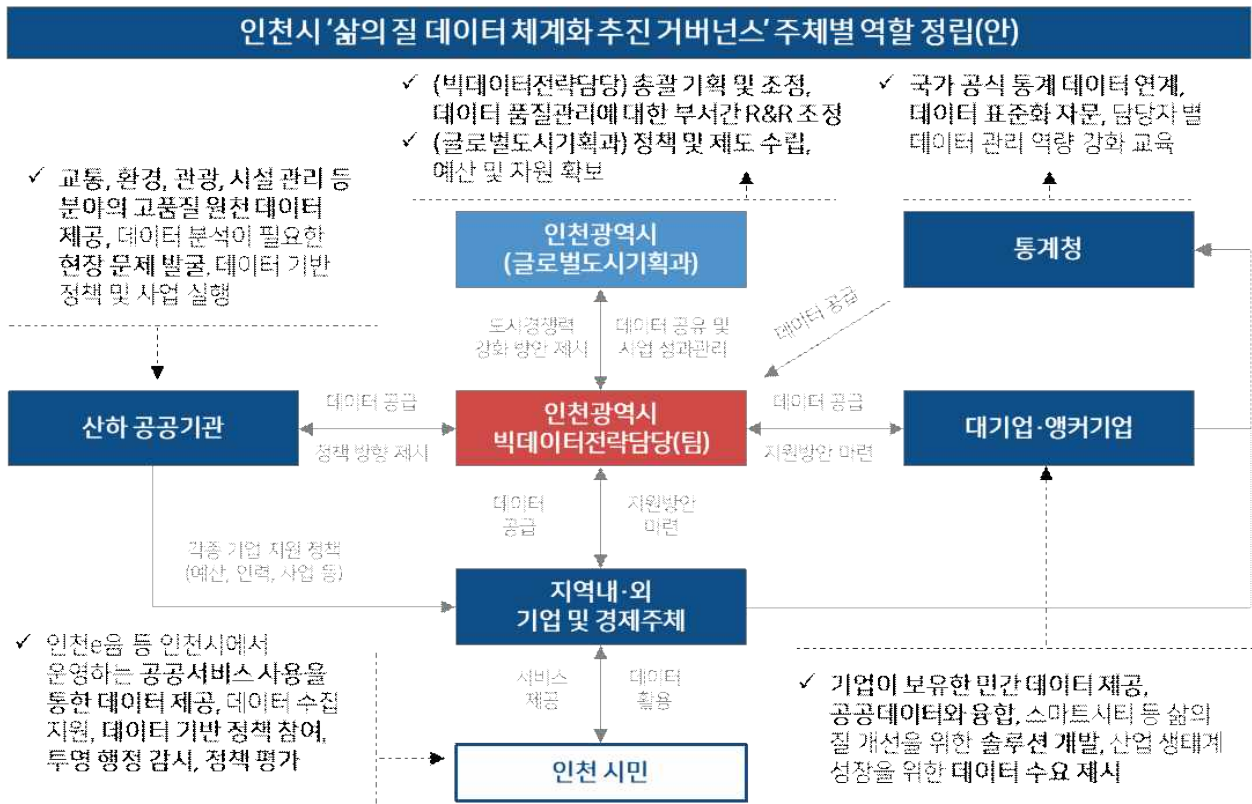
단계	데이터저장소구축	데이터표준양식정의	관계자R&R정립	데이터수집및관리	데이터공개포털구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지표(Mercer, EIU, IESD) 기반 삶의 질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 소스(Source)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기 다른 기준과 형식으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글로벌 지표의 요구사항에 맞춰 통일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제출을 비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아닌, 명확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로 확립하여 데이터 수집의 정서성과 안정성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가 생성되는 원천 부서에서부터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데이터 품질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부여하고 신뢰도를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Vienna 등 타 선진 도시처럼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시민, 연구자,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유도
목표	모든 세부 항목 데이터를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보안성과 확장성을 갖춘 DB 시스템을 구축	데이터 정의, 수집 주기, 측정 방식, 데이터 포맷을 명시한 데이터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	관련 모든 부서 및 유관 기관 간 데이터 제출 의무, 주기, 절차를 명시한 공식 내부 협약 체결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별 해당 데이터의 품질을 책임지는 담당자를 공식 지정, 역할과 책임을 규정	인천의 ‘삶의 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용자(글로벌 기관 포함) 친화적 웹사이트 구축·운영
세부 접근 방안	<p>1.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p> <p>2. 솔루션 검토 솔루션 개발/도입 간 장·단점 비교 분석 및 선정</p> <p>3. 시스템 개발 선정 방안 따라 DB 구조 설계 및 UI 개발</p> <p>4. 데이터 이관 및 테스트 기존 데이터 이관 및 부서별 담당자 대상 UAT 추진</p>	<p>1. 지표별 정의서 작성 각 세부지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산출 방식 분석</p> <p>2. 표준 속성 정의 데이터 측정 단위, 수집 주기, 원천 데이터 출처 등 규정</p> <p>3. 부서별 워크숍 계획 작성된 표준안 기반 워크숍 진행, 의견 수렴 및 반영 추진</p> <p>4. 공식 규정화 가이드라인 기반 시의 공식적 데이터 관리 규정으로 제정</p>	<p>1. 협약서 초안 작성 기관의 역할과 책임, 데이터 제출 일정, 품질 관리 절차, 비밀 유지 의무 등을 포함</p> <p>2. 법률 및 실무 검토 초안에 대해 법무담당관의 법적 검토와 각 부서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내용 보완</p> <p>3. 기관장 서명 및 발효 공식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고,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제도의 실행력 확보 추진</p>	<p>1. 책임자 지정 요청 부서별 소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p> <p>2. 책임자 명부 작성 지정된 책임자 담당 지표, 연락처 등 작성 및 상호 공유</p> <p>3. 역할 및 책임 정의 데이터 정기 검증, 누락 및 오류 수정 등 R&R 구체화</p> <p>4. 정기 교육 실시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데이터 표준, 시스템 사용법 등)</p>	<p>1. 공개 데이터 선정 글로벌 지표와 연관성, 시민 관심도 등 고려 공개 범위 설정</p> <p>2. 포털 기획 및 디자인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UI/UX 기획·디자인</p> <p>3. 시스템 연동 개발 내부 데이터 저장소와 연동하여 데이터 자동 업데이트화</p> <p>4. 시범 운영 및 홍보 언론, SNS 캠페인 등 국내·외 프로모션 추진</p>

자료 : 저자 작성

마. 추진 거버넌스 및 주체별 역할

- 인천시(빅데이터전략팀, 글로벌도시기획과)를 중심으로 산하 공공기관, 대기업, 통계청, 시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 인천광역시: (빅데이터전략팀) 총괄 기획 및 데이터 품질 관리, (글로벌도시기획과)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 산하 공공기관: 교통, 환경, 시설 등 고품질 원천 데이터 제공 및 현장 문제 발굴
 - 통계청: 국가 공식 통계 연계 및 표준화 자문 제공
 - 대기업·앵커기업: 민간 데이터 제공 및 스마트시티 솔루션 협력
 - 인천 시민: 공공서비스 활용을 통한 데이터 생성 기여 및 정책 모니터링

〈그림 14〉 데이터 체계화 거버넌스 주체별 R&R 정립



자료 : 저자 작성

■ 거버넌스 추진안

- 3개의 추진안이 있으나, 인천시 도시경쟁력 지표 수집 및 강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전략 마련 뿐 아니라 시민 체감도 향상을 고려하여 3개 안을 전부 검토해야 함
- 1안: 행정주도형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
 - 인천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데이터 통합 관리
 - 글로벌도시기획과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빅데이터전략팀이 유관기관 및 통계청, 기업 등 자료를 수집·배포하는 수직적 구조
 - 핵심 가치: 강력한 리더십과 행정 통합을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
 - 필요 조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데이터 전담관(CDO)의 권한 및 부서별 데이터 제출 의무 조항 강화)
 - 장점: 예산 집행 및 행정적 추진력이 매우 강함
 - 단점: Top-Down 형태를 띠기 때문에 민간(기업), 시민 등의 의견 반영이 어려움, 시 내부 데이터에 집중된 형태가 될 수 있음
 - 단계별 실행방안
 - 단기: 데이터 전략 전담 TF 구성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
 - 중기: 인천광역시 통합 데이터 공유체계(전 부서의 도시경쟁력 지표 데이터가 완벽히 공유되는 형태) 완성 및 전 부서 성과평가에 데이터 활용·유지·보완 실적 반영
 - 장기: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 고도화 및 글로벌 도시 지표 실시간 산출 및 진단 체계 완성
- 2안: 인천 데이터 거버넌스 얼라이언스
 - 통계청의 표준화 자문을 받아 협력 체계 내 그룹들의 데이터가 공유되는 형태
 - 핵심 가치: 통계청 및 유관기관, 기업과의 전문성 결합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확보
 - 필요 조례: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내 '데이터 협력 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인센티브, 보안 가이드라인 명시)
 - 장점: 데이터의 품질을 높게 유지하여 정책적 근거 창출이 용이함
 - 단점: 기관별 이해관계 조정, 데이터 보안 문제 등 거버넌스 구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형태

○ 3안: 시민 체감형 오픈데이터 모델

- 시민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축하여 인천 시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인·기업의 솔루션 제안, 시에서 필요 데이터 및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 핵심 가치: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
- 필요 조례: 「인천광역시 시민 참여형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시민의 데이터 기반 요구권 보장 및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근거)
- 장점: 시민 체감도가 매우 높고,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 전략 등 연계 가능
- 단점: 단기적·가시적 성과 창출의 어려움(도시경쟁력 지표 상승 등), 시민 요구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 별도 평가체계 구축 필요

〈표 29〉 거버넌스 추진안

구분	1안	2안	3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데이터 통합 관리 • 글로벌도시기획과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빅데이터 전략팀이 유관기관 및 통계청, 기업 등 자료를 수집·배포하는 수직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의 표준화 자문을 받아 협력 체계 내 그룹들의 데이터가 공유되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축하여 인천 시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인·기업의 솔루션 제안, 시에서 필요 데이터 및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리더십과 행정 통합을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및 유관기관, 기업과의 전문성 결합을 통한 데이터 신뢰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
필요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데이터 전담관(CDO)의 권한 및 부서별 데이터 제출 의무 조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 내 데이터 협력 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인센티브, 보안 가이드라인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시민 참여형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 시민의 데이터 기반 요구권 보장 및 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근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 및 행정적 추진력이 매우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품질을 높게 유지하여 정책적 근거 창출이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체감도가 매우 높고,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 전략 등 연계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Down 형태를 띠기 때문에 민간(기업), 시민 등의 의견 반영이 어려움, 시 내부 데이터에 집중된 형태가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이해관계 조정, 데이터 보안 문제 등 거버넌스 구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가시적 성과 창출 어려움(도시경쟁력 지표 상승 등), 시민 요구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 별도 평가체계 구축 필요

사.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 도시경쟁력 지표의 등재 및 순위 상승을 위해 '평가 준비 → 평가 대응 → 환류'의 순환적 프로세스를 정립함
- 1단계: 평가 준비 (Preparation)
 - 지표 매핑 및 표준화: 글로벌 평가기관의 평가 데이터와 시정 사업 간 매칭
 -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각 지표별 데이터 형식을 통일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경쟁력 종합 지표 참고) 데이터 수집 가이드라인 배포
 - 민선 9기 등 시정 목표와 연계한 연간 평가 대응 목표 설계
 - 도시경쟁력 강화 대상 사업 선정 및 관련 부서 지정
 - 필요 데이터 수집 및 최신화 작업 수행
- 2단계: 평가 대응 (Response)
 - 자체 순위 진단: 평가기관 데이터 제출(혹은 평가) 일정에 맞춰 자체적인 순위 진단 수행 및 취약지표 보완
 - 데이터-성과 결합: 정량적 데이터 수집 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한 시정 성과를 동시 수집·자료화하여 평가기관 배포 혹은 시정 성과 발생 시 관련 근거로 적용되는 정량적 데이터를 자료화하여 평가기관 배포
 - 글로벌 평가기관 대상 홍보 이메일 발송 및 네트워크 강화
 - 평가기관의 데이터 요청 시 신속한 데이터 확인 및 제공
 - 분기별 데이터 현행화 및 시스템 입력
- 3단계: 환류 (Feedback)
 - 자산화: 분기별/연간 프로세스 처리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터 체계 지속
 - 결과 확인 및 보완: 도시경쟁력 지표 등수 및 세부지표 점검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지표, 보완해야 할 지표 구분
 -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 변동 요인(상승/하락) 분석
 - 신규 등재 및 순위 상승을 위한 보완 전략 수립 후 차기 목표에 반영

〈그림 15〉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자료 : 저자 작성

제2절 지표관리 중장기 계획

- 글로벌 도시평가 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데이터 기반 정책 연계를 통해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중장기 관리체계 구축

가. 비전 - 글로벌 지표 기반 도시경쟁력 관리선도 도시 인천

- ‘글로벌 지표 기반 도시경쟁력 관리선도 도시 인천’은 글로벌 도시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책 의사결정과 연계하여 도시경쟁력을 지속 진단·개선하는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전임
- 최근 도시경쟁력은 단순한 도시 규모나 경제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혁신역량,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도시지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평가되는 추세로 환경변화 속에서 도시경쟁력 지표는 단순한 평가결과가 아니라 도시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 관리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도 글로벌 도시평가 지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도시의 강점과 취약요인을 지속 진단하며 정책 개선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구축
-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 관리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도시평가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함
- 궁극적으로 본 비전은 글로벌 지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성과를 국제적 기준에서 지속 개선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도시경쟁력 관리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함

나. 핵심가치

■ 데이터 기반 도시관리

- 글로벌 도시평가 지표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 의사결정과 도시 운영에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중심 도시관리 구현

■ 글로벌 기준 도시경쟁력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시평가 지표와 비교 기준을 활용하여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지

속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도시와의 경쟁력 격차를 전략적으로 개선

■ 정책성과 환류

- 도시경쟁력 지표 분석 결과를 정책 기획·평가·개선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 성과를 축적하고 도시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 환류 체계 구축

■ 협력기반 거버넌스

- 인천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업, 통계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경쟁력 관리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

다. 전략방향

- 본 중장기 전략은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를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 관리체계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전략방향은 지표 관리 기반 구축 → 전략적 지표 관리 → 글로벌 평가 대응 →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의 구조로 설계함

■ 글로벌 도시지표 관리체계 구축

-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의 기초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로, 다양한 글로벌 도시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도시경쟁력 지표 관리의 출발점으로서 데이터 확보, 관리체계 정립, 담당 조직 및 역할 설정 등 지속적인 지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구축 단계에 해당함

■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 전략적 관리

- 구축된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 지표를 정책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로, 글로벌 도시지표를 통해 인천의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 분야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 및 전략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등 지표 기반의 전략적 도시경쟁력 관리체계를 의미함

■ 글로벌 평가 대응 및 도시 브랜드 관리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 글로벌 도시평가 결과가 도시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 성과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도시의 정책 성과와 경쟁력이 글로벌 평가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데이터 기반 도시정책 고도화

-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와 도시 데이터를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는 단계이며, 이는 지표 분석 결과를 정책 기획과 평가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 효과를 지속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정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표 30〉 인천광역시 삶의 질 기반 도시경쟁력 지표관리 중장기 전략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지표 기반 도시경쟁력 관리 선도도시 인천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도시평가 주요 지표 지속 등재 및 순위 상승 • 데이터 기반 도시경쟁력 관리체계 구축 • 글로벌 평가기관 대응 및 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 			
전략방향	글로벌 도시지표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표 전략적 관리	글로벌 평가 대응 및 도시브랜드 관리	데이터 기반 도시정책 고도화
실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지표 DB 및 데이터 저장소 구축 • 지표별 담당부서 책임관리제 도입 • 글로벌 지표 관리 매뉴얼 구축 • 데이터 품질관리 및 검증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도시지표 매핑체계 구축 • 전략지표 관리 • 취약지표 개선 전략 추진 • 지표기반 정책관리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평가기관 네트워크 구축 • 평가 대응 매뉴얼 구축 • 글로벌 평가 대응 TF 운영 • 도시성과 홍보 전략 구축 • 글로벌 도시브랜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쟁력 분석 리포트 정례화 • AI 기반 도시경쟁력 분석 • 시민 체감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민관 데이터 협력 생태계 구축
K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도시지표 DB 구축률 • 지표별 담당부서 책임 관리제 도입률 • 글로벌 도시평가 순위 개선 지표 수 			

라. 추진 로드맵

- 단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도시지표 관리의 기초 기반을 구축하고, 중기 단계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며, 장기 단계에서는 도시경쟁력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도시평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단기(1~2년) 단계에서는 글로벌 도시지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
 - 글로벌 도시평가에서 활용되는 도시지표 목록을 정비
 - 지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 지표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지표관리의 책임성을 확보
 - 글로벌 평가기관 대응체계를 구축
 - 도시경쟁력 분석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도시경쟁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중기(3~5년) 단계에서는 구축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지표를 정책관리 도구로 활용
 -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경쟁력 지표와 시정 정책을 연계
 - 글로벌 평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도시 성과가 글로벌 평가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도시지표 Top 30 진입을 목표로 도시경쟁력 수준을 단계적으로 개선
 - 도시경쟁력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
 - 장기(5~10년) 단계에서는 도시경쟁력 관리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여 데이터 기반 도시경쟁력 관리 선도도시로 도약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분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도시평가에서 상위권 진입을 추진
 -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확립하여 인천의 도시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지속 강화

〈표 31〉 인천광역시 삶의 질 기반 도시경쟁력 지표관리 중장기 전략 추진 로드맵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도시지표 목록 정비 • 지표 DB 구축 • 담당부서 지정 • 글로벌 평가기관 대응체계 구축 • 도시경쟁력 분석 리포트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시스템 구축 • 글로벌 평가기관 협력 확대 • 글로벌 도시지표 Top 30 진입 • 도시경쟁력 데이터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도시경쟁력 관리 시스템 구축 • 글로벌 도시평가 상위권 진입 • 글로벌 도시브랜드 확립

제5장

05

종합 제언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제언

(빈페이지)

05

종합 제언

제1절

연구요약

가. 인천 도시경쟁력 지표 보완 및 진단

1) 글로벌 지표 체계 분석 및 인천 도시경쟁력 지표 보완

- 글로벌 지표 심층 분석: Mercer(QLI), EIU(GLI), IESE(Motion Index), Kearney(GCI/GCO), Mori재단(GPCI)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가 기관의 지표 체계를 정밀 분석하여, 각 기관이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도시 유인성(Urban Attractiveness)'의 핵심 요소가 인구·인재, 투자·자본, 기업·산업 유치 역량임을 도출함
- 인천광역시 통합 도시경쟁력 지표 보완: 개별 기관 지표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대 글로벌 지표와 모션 지수(Motion Index)를 통합하여 10개 핵심 분야, 총 107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독자적인 진단 체계를 확립함
 - 구성 분야: ①경제·비즈니스, ②인적자원·교육, ③혁신·스타트업, ④사회적 안정성, ⑤보건·공중위생, ⑥문화·여가, ⑦환경·지속가능성, ⑧도시 인프라, ⑨국제 연결성, ⑩IT·디지털
- 데이터 공백(Gap) 최소화: 홈페이지 공개 현황 및 공공데이터 가용성을 전수 조사하여 GPCI(83.5%), GCI(79.3%) 등 주요 지표의 데이터 확보율을 제고하고, 미확보 정성 지표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마련함

2) 인천시 도시경쟁력 객관적 진단 결과 (비교우위 분석)

- 정량·정성적 종합 진단: 선진 벤치마킹 도시(토론토, 함부르크, 파리)와 인천시의 데이터를 Z-Score(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여 10개 분야별 상대적 경쟁력을 심층 진단함

■ 강점(Strength) 분야

- (보건 및 공중위생) 병원 수(1.5점) 등 하드웨어 인프라가 풍부하여 파리에 이어 2위 수준의 경쟁력을 보임
- (환경 및 지속가능성) 공기질(1.6점) 및 기초 환경 관리 역량이 우수하여 비교 도시 대비 상위권을 기록함

- (안전 및 평화) 세계평화지수(0.3) 등 치안 및 도시 안전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함

■ 약점(Weakness) 및 개선 필요 분야

- (인적자원 및 교육) 숙련 인력 가용성(-1.6)과 대학 수(-0.7) 부족으로 인재 양성 및 유치 기반이 취약함
- (혁신 생태계) GDP 대비 R&D 투자(1.6)는 높으나, 이것이 실제 창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경쟁력) 사회적 자유(-1.5), 온라인 행정 서비스(-1.2) 등 시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지표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나. 글로벌 도시 삶의 질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선진도시 벤치마킹 분석

1) 벤치마킹 대상 선진도시 선정

- 단계적 선정 프로세스: Mercer QLI 상위 100개 도시를 모수로 하여, 인천과 유사한 인구 규모(200~500만), 항만/공항 보유 여부, 데이터 가용성 등을 필터링하여 후보군을 압축함
- 최종 선정 도시 및 벤치마킹 테마
 - 토론토(Toronto): 주거 안정 및 포용적 커뮤니티 모델 (수직 커뮤니티, 가족 친화 조례)
 - 함부르크(Hamburg): 경제 재생 및 수변 공간 혁신 (하펜시티 프로젝트, 녹색 그물망)
 - 파리(Paris): 교통 혁신 및 기후 적응형 도시 (15분 도시, 자전거 혁명)

2) 분야별 심층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주거 및 인적자원 (vs 토론토)

- 토론토의 '오픈 데이터 기반 투명성'과 '수직적 커뮤니티(고층 주거 내 공공시설 의무화)'를 벤치마킹하여, 인천의 신도시 고밀 개발 부작용을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 유입을 위한 'Inbound Center(외국인 원스톱 지원)' 구축을 제안함

■ 경제 및 도시재생 (vs 함부르크)

- 함부르크의 '항만 경제+도시 공간 통합 재편' 모델을 적용하여, 제물포 르네상스 등 내항 재개발 시 주거·문화·산업이 복합된 '산업·물류형 넷제로 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산학 연계 '듀얼 시스템' 교육 도입을 도출함

■ 교통 및 기후환경 (vs 파리)

- 파리의 '보행 중심 15분 도시'와 '초연결 인프라'를 벤치마킹하여, GTX 및 광역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15분 생활권 완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규범(바이오클리마) 도입을 시사점으로 제시함

■ 디지털 및 행정 (종합)

- 시민 참여형 스마트 시티(토론토)와 디지털 트윈 항만 관리(함부르크)를 융합하여, '인천e지'의 슈퍼앱(Super-App) 고도화 및 시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함

다. 글로벌 삶의 질 지표에 인천시의 도시경쟁력 반영 추진

1) 글로벌 평가기관 등재 지원 및 성과

- 등재 추진 활동: GPCI, Happy City Index, 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 등 주요 25개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영문/국문 서한문과 홍보자료(IncheonNow 등)를 발송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함

- 주요 등재 성과(2025년 기준)

- Kearney GCI/GCO 동시 진입: 세계적인 컨설팅사 커니의 'Global Cities Index' 및 'Outlook'에 최초로 등재되는 쾌거를 달성함
- UN 지속가능발전도시상 수상: UN-Habitat 주관 'Shanghai Award' 수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음
- 데이터 협력 강화: 'Happy City Index' 평가를 위해 108개(확보율 91.5%)의 맞춤형 데이터를 직접 입력·제공하고, StartupBlink 등과 협력 채널을 구축함

2) 데이터 관리 체계화 및 거버넌스 구축

- 데이터 관리 유형화 및 매트릭스 진단: 156개 지표를 데이터 성격에 따라 5가지 유형 (Type A~E)으로 분류하고, '경쟁력 수준'과 '관리 수준'에 따른 4분면 매트릭스 진단 모델을 수립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함

- 5단계 데이터 체계화 로드맵 수립

- 1. 저장소 구축: 단일 소스(Single Source) DB 시스템 구축



- 2. 표준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정의 및 주기 설정
 - 3. R&R 정립: 부서 간 데이터 제출 의무화를 위한 공식 협약 체결
 - 4. 품질 관리: 책임관 지정 및 정기 검증 프로세스 운영
 - 5. 공개 포털: 글로벌 접근성을 높인 영문 데이터 웹사이트 오픈
-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인천시(빅데이터전략팀 총괄, 글로벌도시기획과 정책수립)를 중심으로 통계청(표준화 자문), 산하 공공기관(원천 데이터), 시민·기업(데이터 생성 및 활용)이 참여하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제안함
- 환류(Feedback) 프로세스 정립: '평가 준비(목표설정) → 평가 대응(데이터 제공) → 결과 환류(순위 분석 및 전략 수정)'로 이어지는 연간 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순위 상승 기반을 마련함

제2절 정책제언

가. 도시 체질 개선: 5대 핵심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

1) 인적 자원 및 교육: '지식 생산 도시'로의 전환

■ 글로벌 인재 유치 센터 신설

- 토론토는 2017년 연방·주·지방정부가 공동 출자하여 비영리 투자유치기관인 'Toronto Global'을 설립하였으며, 외국 기업의 토론토 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함
 - 인재 연결 프로그램(Talent Connections Program)을 통해 국제 기업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18개 대학·컬리지와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를 매칭하며, 비자·정주 지원 컨설팅을 제공
 - 또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Global Talent Stream(GTS)' 제도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취업 비자를 2주 이내에 처리하고, 배우자에게도 개방형 취업 허가를 부여하여 가족 단위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도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 주거,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전문인력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겪는 행정적 장벽과 정착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인재 유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가족 단위의 안정적 정주를 유도함으로써 단기 체류가 아닌 중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궁극적으로 바이오·항공·반도체 등 인천 전략 산업의 만성적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의 소비·납세·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다양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인천형 '기업연계 실무교육' 체계 도입

- 인천광역시의 전략 산업과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는 현장 밀착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 필요
 - 독일의 듀얼 시스템(Duales Ausbildungssystem)은 기업 현장 실습(약 70%)과 직업학교 이론 교육(약 30%)을 결합한 2~3년 과정의 직업교육 제도로, 약 350개 공인 직종에 대해 연방 차원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함부르크는 2007년 독일 최초로 '함부르크 직업교육훈련원(HIBB)'을 설립하여 직업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240개 직종에 걸쳐 기업 내 훈련사와 직업학교 교사의 공동교육(Learning Location Cooperation, LOK)이 독일 내에서도 가장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나아가, 2020년 설립된 함부르크 응용과학대학(BHH)은 학사 학위와 직업훈련 자격을 하나의 교육 과정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업연계형 도제 과정(study-integrated apprenticeship)'을 독일 공립대학 최초로 도입하였음

- 이러한 모델을 바이오·항공·반도체 등 지역 전략 산업에 적용하여, 인천대·인하대 등 지역 대학과 산업체가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기업 현장 실습 학점을 정규 학위 과정에 인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IT 및 디지털 혁신: '시민 체감형 스마트 행정' 구현

■ 시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 고도화

- 시민이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플랫폼(정부24, 카카오톡, 네이버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
 - 현재 정부24, 카카오톡, 네이버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기존 플랫폼과 아직 연동되지 않은 인천시 고유 행정 서비스를 점검하여, 미연동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당 플랫폼의 미니앱·챗봇·알림 채널 형태로 탑재함으로써,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시민이 인천시 행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할 필요
 - 글로벌 평가 지표에 직접 반영되는 외국어 대응 디지털 행정 서비스(영어·중국어·일본어 등)를 강화하여,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이 행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다국어 디지털 채널을 확충하고, 이를 온라인 서비스 지수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
 - AI 기반 맞춤형 행정 안내 시스템(예: 생애주기별 복지 혜택 자동 추천, 전입 시 필요 서류 원스톱 안내 등)을 도입하여, 시민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인천시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물류 관리

- 함부르크 항만청(HPA)의 'smartPORT'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인천항 및 물류 체계의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
 - 인천항은 수도권 소비 시장과의 근접성, 중국 노선 중심의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입지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만 내 교통·화물 흐름의 실시간 관리, 선박

삶의 질 기반 인천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컨설팅

입출항 스케줄 최적화, 컨테이너 야적장 운영 효율화 등 운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항만 운영 효율성 제고,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 가속화 필요

- 함부르크 항만청은 독일 최대 항만(연간 약 8,000척 입항, 약 1억 3,500만 톤 화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smartPORT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smartPORT logistics: IoT 센서 기반의 교통·화물 흐름 실시간 모니터링, 인터모달 교통 관제센터(PortTraffic Centre) 운영, 트럭 주차장 자동 탐색 앱 등을 통해 항만 내 물류 정체를 예측·해소
 - smartPORT energy: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및 LNG 벙커링, 육상 전력 공급(Cold Iron) 등을 통한 항만 탄소 배출 저감
 - Digital Port Twin: 항만 인프라를 3D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구현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기술과 AI 시뮬레이션을 결합하여 선박 지연 시 'What-if 분석'을 통해 자원 배치를 사전 최적화함
 - 또한 함부르크대학교 TwinSim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350만 유로 지원을 받아 컨테이너 터미널의 디지털 트윈을 개발, 과거 운영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해 빈 컨테이너 운송 감소 및 속도 조절 등 친환경 물류를 실현하고 있음

3) 경제 및 비즈니스: '고부가가치 창업 생태계' 조성

■ 글로벌 HQ 유치 인센티브 강화

- 아시아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연장, 임직원 정주 지원금, 사무실 임대료 보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HQ 패키지'를 제공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임직원의 주거·자녀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 유치와 인력 정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 기능(금융, R&D, 물류 허브 등)을 인천에 둘 경우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필요

4) 도시 인프라 및 연결성: '초연결 도시' 완성

■ 광역 철도망 조기 구축

- 촘촘한 광역 대중교통 연결망을 목표로 GTX 및 도시철도망 확충을 가속화하여, 시민의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도심 접근성을 강화

- 참고 사례로, 파리는 현재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 인프라 사업인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Grand Paris Express)'를 추진 중임
 - 이 사업은 총 약 360억 유로(약 47조 원)를 투자하여, 기존 메트로 14호선 연장과 4개 신규 노선(15·16·17·18호선) 건설로 약 200km의 새로운 궤도와 68개 역을 신설하는 것임
 - 이를 통해 하루 약 300만 명의 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파리 중심부를 거치지 않고 교외 간 직접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 대비 통근 시간을 최대 30분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2030~2031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천도 GTX-B 노선, 인천 2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사업의 조기 완공을 추진하고, 서울·경기 주요 거점과의 환승 연계를 강화하여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내에서 인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통합 모빌리티(MaaS) 상용화

- 함부르크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모델을 적용하여,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결제·예약 체계로 통합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을 구축
- 함부르크 교통조합(HVV)은 2020년 통합 모빌리티 앱 'hvv switch'를 출시하여, 지하철·버스·페리 등 대중교통 티켓 구매와 카셰어링(SIXT share, MILES, Free2move, Cambio), 온디맨드 셔틀(MOIA), 전동킥보드(Voi) 등 7개 이상의 교통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과 앱에서 예약·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내 80개 이상의 'hvv switch 포인트(모빌리티 허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역 주변에 카셰어링, 자전거 대여, 전동킥보드, 전기차 충전소 등을 집중 배치하고, 환승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또한 'hvv Any'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먼저 이동하고 최저가로 자동 정산받는 사후 결제 방식도 도입하였음
- 이를 참고하여 인천e지 앱과 교통카드 결제 체계를 통합하고, 버스·지하철·공유 자전거·킥보드·택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부담률을 제고

■ 공항 경제권 고도화

- 인천국제공항을 단순 환승지를 넘어, 공항 배후 지역을 MRO(항공기 정비·수리·점검), 항공 물류, 국제회의(MICE),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 지구로 육성
- 항공 MRO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항 인근에 국제회의 시설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공항을 통한 유동 인구와 항공 수요를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로 전환
- 이를 위해 공항 경제권 특화 인센티브(세제 감면, 임대료 지원 등)를 마련하고, 항공사·MRO 기업·물류 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

5) 문화 및 환경: '지속 가능한 품격 도시' 브랜딩

■ 녹색 그물망(Green Network) 구축

- 함부르크의 '그뤼네스 네츠(GrünesNetzHamburg, 녹색 네트워크)' 사례를 참고하여, 도심 내 단절된 공원과 녹지를 생태 회랑으로 연결하는 탄소 중립형 정주 환경 구축
 - 함부르크는 1919년 도시계획가 프리츠 슈마허(Fritz Schumacher)의 '축 개념(Axial Concept)'에서 출발한 녹색 도시 계획을 100년 이상 발전시켜 왔음
 - 현재의 GrünesNetzHamburg는 ① 도심에서 교외로 방사형으로 뻗는 12개의 '녹색 축(Landscape Axes, 1025km)'과 ② 도심을 동심원으로 감싸는 2개의 '녹색 링(Green Rings)' 구 성곽 자리의 내부 링과 도심에서 약 810km 거리의 약 100km 길이 외부 링으로 구성됨
 - 이 녹색 네트워크는 공원, 놀이터, 정원, 묘지, 습지, 하천변 등을 보행·자전거 도로로 연결하여, 도시 면적의 약 40%를 녹지로 덮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가로수만 24만 5,000그루에 달하며, 2011년 유럽 녹색 수도(European Green Capital)로 선정된 바 있음. 이 네트워크는 CO₂ 흡수, 폭우·해일 시 우수 흡수, 열섬 효과 완화, 생물다양성 증진, 자전거·도보 통행 활성화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
- 인천도 경인 아라뱃길, 수봉공원, 인천대공원, 소래습지, 월미도 등 기존 녹지 자원을 생태 회랑으로 연결하고,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의 녹지 조성을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도보 5~10분 내에 녹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 필요

나. 글로벌 네트워크: 평가 대응 및 환류(Feedback) 시스템 정착

- 지속적인 순위 상승과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성과를 환류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함

1) 선제적 평가 대응 프로세스 운영

- 연간 대응 체계: '목표 설정(연초) → 데이터 현행화 및 증빙 마련(분기) → 평가 대응(수시) → 결과 분석 및 전략 수정(연말)'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함
 - 각 단계별로 전담 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고, 분기별 점검 회의를 통해 지표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미진한 분야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시행해야 함
- 맞춤형 데이터 제공: 평가 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맞춤형 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능동적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함
 - 주요 글로벌 도시 평가 지수(GPCI, Global Cities Index 등)별로 평가 항목과 데이터 요구 사항을 분석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각 평가 시기에 맞춰 최신 데이터와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함

2) 글로벌 협력 강화

- 평가기관 파트너십: Mori 재단(GPCI), Kearney 등 주요 평가 기관과 정기적인 미팅 및 세미나를 통해 인천의 도시 발전 전략을 적극 홍보하고, 평가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
 - 평가기관 관계자의 인천 방문을 초청하여 현장에서 도시 발전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인천시 공무원의 해외 평가기관 방문·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상호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함
- 국제 수상 및 인증 확대: UN-Habitat 수상 성과를 발판으로, 지속가능성, 스마트시티, 회복탄력성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어워드 및 인증에 적극 도전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입체적으로 강화해야 함
- 유럽 녹색 수도(European Green Capital) 등 환경 분야,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등 스마트시티 분야, UN SDGs 관련 인증 등을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도전해야 함
- (결언) 위와 같은 데이터 체계화, 분야별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적극적인 글로벌 소통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인천광역시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Global Top 10 City'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